

道德政治의 哲學的意義와 中庸九經衍義 考察

——晦齋李彥迪先生の 道學思想을 中心으로——

慶北大學校 專任講師 金 丁 鎮

《目 次》	
I. 序 論	9. 修軍政論(有備無患 즉 國保衛精神)
II. 晦齋先生の 學問과 人道精神	10. 審幾微論(將次國家興亡과 內憂 外患의 對備策 및 情報)
III. 治道에 나타난 一綱十目疏와 政治方法	IV. 中庸九經衍義와 大道思想의 內容과 그 根本
1. 嚴家政論(人格教育和 社會秩序)	1. 政治方道の 總論
2. 國本論(指導者資質養成의 方道)	2. 修身明理의 道
3. 正朝廷論(公明正直한 政府의 紀綱確立)	3. 誠意正心의 功用
4. 慎用舍論(人事行政管理의 公正性)	4. 尊賢之內容과 그 意義
5. 順天道論(人心은 天心民心所在把握)	5. 親親의 意義와 和睦
6. 正人心論(民弊除去 및 美風良俗宣揚)	V. 結 論
7. 廣言路論(民衆의 輿論 및 言論保障)	
8. 戒侈欲論(勤儉節約과 奢侈風潮淨化 및 國力培養)	

I. 序 論

晦齋先生은 朝鮮朝당시 五賢中의 한사람이며 學問과 德望이 남달리 뛰어난 勿論이려니와 道學 經世 思想 및 性理 哲學面에서도 他가 推從을 不許할만큼 偉大한 學者이심에 틀림없다.

先生은(149~1553) 朝鮮王朝 中期 中宗 仁宗 明宗 三代를 거쳐 62세의 一期로 짧은 生을 마쳤다. 그러나 先生께서 後世에 남긴 그의 學問에 나타난 業績은 韓國儒學史中에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性理哲學의 無極太極辯의 理論은 朝鮮 性理學의 先驅者이다.

先生の 哲學은 濂洛의 學 특히 孔孟의 正統儒學과 朱子學을 바탕으로 形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先生이 二十七歲 때에 이미 忘機堂 曹漢輔와 往來한 太極論辯의 理論에서 이미 性理哲學이 뛰어나고 있다.

忘機堂이 自然主義의이고 老莊의 또는 禪學의要素를 철저히 排除하고 특히 孔孟 朱子의 實事求是인 儒學을 明澈하게 闡明하고 太極 無極論과 道學思想의 正統性을 定立 하였다.

後日에 先生의 明辯을 得道한 退溪는 이에 感服하여 朝鮮性理學의 根源을 이루게 되었으니 後世人은 一說 無晦齋先生이면 無退溪라고 까지 오늘에 이르고 있다. 先生의 學問을 便宜上 哲學과 道學 및 治道와 九經衍義로 나누어 考察해보면 먼저 性理太

極無極의 哲學思想은 朝鮮儒學史에 있어서 源泉的인 理論을 定立하였고 또 治道에 있어서是一綱十目條로 詳細히 說明하고 있다. 그리고 九經衍義篇에는 修身明理와 誠意正心과 尊賢 親親의 內容으로 論證하고 있으니 이 세가지를 于先 簡約하게 소개한다면 아래와 같다.

첫째 哲學的인 面에서¹⁾는 李相殷先生이 쓴 晦齋先生의 行狀研究에 根據하여 考察하던 李相殷先生은 退溪가 쓴 行狀을 研究하면서 退溪는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옛부터 仁賢의 化를 입었으나 그 學이 傳함이 없다고 하였으니 그 學은 仁賢의 化의 學임을 말한다.

그러면 仁賢의 化란 무엇인가? 仁賢은 어진 사람이란 뜻이니 그 어진사람은 特定한 사람을 두고 한 말이다. 그가 바로 箕子를 指稱한 말이라고 했다.

...우리는 지금 國史에서 箕子朝鮮을 否認하고 箕子東來說을 否認하지만 과거 우리先人들은 箕子東來說을 사실로 알고 檀君朝鮮의 뒤를 箕子朝鮮으로 이어 놓았다.(李相殷)

그런데 箕子是 周武王에게 政治의 大道인 洪範九疇를 가르쳐준 스승으로 傳해온다.

李相殷先生은 退溪가 仁賢의 化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傳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 말은 바로 箕子東來說과 洪範九疇는 檀君朝鮮과 이어진다고 믿기때문에 退溪는 이미 우리나라에 仁賢의 化의 學이 있었다고 한 말이다.

洪範思想은 書經一篇에 傳해지고 있거니와 洪範. 九疇는 國治 즉 政治 哲學의 最高原理가 된다.

또 書經大禹謨篇에 보던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이라하여 堯舜禹相傳의 心法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여기에서 부터 湯·文·武·周公·孔子·孟子· 그리고 朱子에까지 이어져 道學이 儒學에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았을때 晦齋先生은 儒學을 根本的인데서 부터 즉 洪範九疇나 書經大禹謨까지 通達하고 性理哲學까지 한것을 第一먼저 退溪가 認定하고 있다.

때문에 退溪역시 堯舜禹相傳의 心法과 湯 文 武 周公 孔孟을이어 朱子 그리고 晦齋를이어 性理哲學을 道通한 것이다. 原來道學에서 찾아 볼수 있는 性理哲學이나 理氣哲學은 위와 같이 즉 晦齋나 退溪같이 正統性을 이어 工夫하지 않고서는 性理學이니 道學이니 理氣哲學이니 하는 말은 許言이 될 우려도 있다.

둘째로 治道는 政治方法을 論하고 있는바 一綱十目疏로서 先生은 明要하게 그 內容을 밝히고 있다.

治者君主는 學問을 익혀 賢人 聖人될 所以를 가져야 된다고 했으며²⁾ 嚴家政으로 朝廷은 規律과 秩序가 道德의으로 印證해야하며 國家의 發展은 各階層의 人材를 잘 登用하여 賢者를 발굴 해야 한다고 하던서 人事行政을 慎重히하여 人材를 적격적소

1) 晦齋全書國譯本 1974年刊行 p.876 李相殷博士의 論文 晦齋先生의 哲學思想篇參照.

2) 晦齋先生文集卷七一綱十目疏 1973年 成均館大學校大東文化研究院影印 pp.99~107 參照.

에 登用하는 것이 옳다고 主張하였다.

또 天道에 어긋남이 없게하여 人民을 사랑 할 줄알아야 되며 人心을 바로잡아 美風良俗을 淳厚하게 할 것과 言路를 通하여 民聲을 바로 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奢侈와 낭비를 節約하여 經濟的 빈곤을 탈피하고 不信風潮를 제거 해야한다고 했으며 軍防을 정비 有備無患하여 國家를 保衛하고 安民을시켜야 한다고 力說했다.

세째로 經義의 內容은 政治의 方法을 論述하였다. 먼저 修身明理의 道로서 政治를 하는 君主는 修身 齊家治國 平天下의 根本을 修身에서 부터 始發해야 한다고 보았다.³⁾ 孟子는 盡己心자는 本來 人間이 타고난 善한 本性을 다하는 것이니 性을 알면 天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心を 存하여 性을 養함은 天을 섬기는 것이 된다고 明理를 밝혔다. 또 朱子는 心이란 것은 人間의 神明이 衆理를 具備하면 萬事に 應할수 있는 것이니 原來性이란 (즉人性) 心の 具備한 理이며 天역시 또 理에서 나오는 것이다. 天이란 것은 사람의 心에 있지 않고 있을 수없다고 보았으며 또 天은 理의 自然으로서 人으로 하여금 存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性이란 것도 理의 全體로서 사람에게 얻을수 있으며 心은 人間의 몸에 主宰하는 理를 具備한 것이다.

誠意正心을 孔子는 心操하던 즉 마음을 잡으며 誠이 存하고 心捨하면 亡去하니 그 心の 出入은 定時가 없으니 그 定處도 알수없는 것은 惟心을 이루는 것이라 보았다. 誠도 그 마음이 本性에 存하느냐 捨하느냐에 따라 善에 임각하여 誠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誠은 心之理를 뜻하는 것이다. 至誠하면 敬天에까지도 神明과도 通할 수 있는 것이다.

또 尊賢을 主張하는바 政治를 하는데 賢者를 發屈하고 대접할줄 알아야 그 政治가 잘 다스려 진다고 하였다. 孟子는 賢人을 높이고 才能을 使用하여 俊傑한 人才가 位에 있으면 天下의 士가 모두 기뻐하고 朝廷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했다. 또 君主가 賢人을 좋아 하는 誠意가 있어 賢명한 哲人이 그 正位에 있게 되면 山林에 있는 선비도 기뻐하여 國政에 參與할 뜻을 원할 것이니 이것이 結論의으로는 國家生民의 福이 되는 것이다.

끝으로 本論文은 晦齋先生의 그 넓고 깊은 學問을 다 工夫하기가 어려워 심오한 哲學的인 면은 約簡만 소개하고 주로 治道에 관한 人道思想과 中庸九經衍義에 보이는 政治方法을 考察하고 끝으로 引用文句나 解釋은 現代적 의미를 남게 하기 위하여 의역을 많이 하였음을 먼저 밝혀두면서 先生의 學問을 冰山의 一角에서 考察해 보았고 앞으로 時間이 許落되는 대로 깊은 哲學的인 面을 研究 할것을 約束하였다.

3) 上揭書, 中庸九經衍義卷二와 四卷 pp. 355~368 成均館 大學校影印 總論修身之道章參照, 孟子曰盡其心者知其性也 知其性則 知天矣, 存其心 養其性 所以天也.

Ⅱ. 晦齋先生의學問과 人道精神

禮記에 孔子가 魯哀公과 같이 同席하고 있을때 哀公은 孔子에게 묻기를 人道精神에 있어서 어떤 것이 제일 큰 것입니까 하니

孔子는 人道⁴⁾에 있어서는 政治가 가장큰 것이니 政이란 것은 正인 것이라고 하였다. 君主가 正을 行하면 百姓은 政治에 잘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政治를 하는데는 사람을 사랑하고 貴하게 여길줄 아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되었으니 잘 다스려 지게 되었었다.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禮가 가장 큰 것이 되었으니 政治는 禮로써 하면 잘 다스려 지는 것이며 또 禮에는 敬이 第一이니 敬이 至極하면 大昏이(君王의 婚인과 같은) 큰 것이 되었읍니다.

大昏에 이르면 冕冠을 쓰고 親迎하는 것은 그 아내를 정중히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君子는 敬에 誠하면 親함이 되고 만약 敬하지 아니하면 親을 버리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또 사랑이 없으면 親하지 않으며 親하지 않으면 敬하지 않으며 正하지 않으니 愛와 敬은 바로 政治하는 데 根本이 되는 것이다.

바로 人道精神은 政治를 바르게 하고 百姓을 지극히 사랑하고 사람과 더부러 親하고 敬이 至誠에 이르르면 바로 人道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晦齋는 人道思想을 제일먼저 政治의 正함과 사람을 愛함과 敬할줄 아는데서 부터 始發이 된다고 보면서 제일먼저 配匹을 즉 아내를 맞아 드리는데 親하게 하는 것을 例로 아래와 같이 論했다.

配匹⁵⁾의 관계는 生民의 始初이고 萬福의 本源인 것이다. 婚姻의 禮가 道德의으로 이루어져야만 萬物에까지도 成遂하고 天命이 完全하게 될 것이니 이것은 바로 紀綱의 으뜸이되고 王教 始發의 端緒가 된다고 하였다.

臣은 살피옵건대 政治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있으나 그 사랑함이 節次가 없으면 必히 紊亂해지게 되니 禮가 있어서 다스려지고 또 禮는 敬을 主로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敬의 至極함이란 여기에 大昏이(王의婚禮) 큰 것이 되는 이유는 天子나 諸侯가 尊貴함으로서 반드시 冕冠을 쓰고 皇后를 親히 歡迎하는 禮의 節次를 하는것은 그 禮의 始初를 바르게 하는 所以인 것이라고 하였다.

모든 人道는 가까운 夫婦의 관계에서 부터 큰 端이 되니 모든 사람은 마땅히 謹慎해야 되는 것이다.

4) 晦齋全書中 庸九經衍義卷之十六 親親五 p. 451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 研究院 1973年 影印.

5) 同上 配匹之際 生民之始 萬福之源 昏姻禮正然後 品物道而天命 全些綱紀之首王之端也.

여기에 敬과 恭遜과 親愛함은 바로 男女의 人格을 존중하고 夫婦의 職責을 분별하여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고 夫婦의 義가 있는 뒤에 父子가 있어 親이 있고 父子간에 親이 있는 뒤에 君臣간에도 正히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禮의 根本과 人間의 道를 바로 잡으면 萬事가 순조롭게 잘 다스려지게 되는 까닭에 君子는 始初를 謹慎해야 한다고 하였다.

先生의 學問은 孔孟의 正統學을 계승하고 朱子學을 完全히 體得한 朝鮮儒學에 있어서 道學의 理論的 學問에 先驅者일 뿐만 아니라 性理學에 있어서도 無極太極辯을 亡機堂과 같이 論辨한 內容을 살펴 볼때 우리나라 儒學思想史에 큰 영향을 주었다.

先生은 英明⁶⁾함이 남보다 뛰어 났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英悟함 역시 뛰어 났고 그 天資함은 道에 가까워 世俗學問 밖에 또 自己를 爲하는 學問이 있음을 알고 이를 求하고자 함에는 體得과 經驗으로 致知誠意에 用力하였다.

人格과 學問에만 高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學問을 할때에 역시 옆에 있는 사람들의 弄談을 듣지도 않고 오로지 學業에 全力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學文을 닦은 先生은 드디어 聖賢의學 性理學에 潛心되어 進德 修業하는 方法을 履行하게 되니 점점 高明한 理治를 깨닫게 되어 홀로 神妙함을 즐겨 하였다.

이렇게 心身 性情의 道學에 根本하여 家鄉과 邦國에 實行하였으니 先生의 學問과 道學은 體와 用이 같이 겸비한 學問이라고 보는 것이다.

平生 正을 衛하고 邪를 斥하는 正道는 勇敢하고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그 精詣와 見識과 獨得한 先生의 妙理는 여기에 細密히 論하지 아니 하여도 亡機堂 曹漢輔와 더불어 論한 無極, 太極 論辯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 無極太極의 論辯은 儒道의 本源을 闡明하고 異端(老佛)의 邪說을 辨駁하여 精微한 理를 貫通하고 上下(天人)를 한결같이 純粹한 正道에 根本한 儒道를 論했었다.

李恒福의 墓誌名에 晦齋先生의 學問에 對하여 言及한 바를 考察해 보면 우리 朝鮮은 옛날에 仁賢의 教化를 입기는 했으나 그 學問은 理論的으로 또는 體系的으로 傳修함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麗末에서 李朝初에 이르기까지 豪傑之士들이 道學에 뜻을 두기도 한 道學者가 없지는 않았으나 當時를 上考해 보면 道學의 明誠과 實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李恒福은 말했다.

그러나 晦齋先生의 一綱十目疏를 본(中宗) 朝廷에서는 感歎하기를 옛날 中國의 有名한 眞德秀도 先生보다 더 낫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退溪⁷⁾ 先生은 일찍이 晦齋先生의 行狀을 지으면서 우리 朝鮮은 옛날에 仁賢의

6) 全書 先生墓誌名 李恒福謹誌 晦齋全書 國譯 pp.8 1930 參照.

7) 先生神道碑銘 奇大升撰에 退溪先生의 行狀을 소개한 내용 참조. 晦齋全書及, 國譯本 pp.817 ~823.

教化는 입기는 하였으나 後世學者들에게 찾아볼수가 없어 지금까지 仁賢의 道는 어두운 지경이 었다.

그러나 우리선생(晦齋) 처럼 스승에게 傳授하지 않고서 自己 스스로 仁賢의 學, 즉 道學에 奮起하여 은연히 仁賢의 學을 빛나게 하여 德과 行에 符合하고 著術까지 나오게 되어 後世에 傳하니 우리 朝鮮에서는 先生과 같은 學者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였다.

先生은 聖賢의 學을 崇尚하고 또 道學 즉 仁賢之學을 계승 창달 했을 뿐만 아니라 또 明誠한 哲學者로서 自己가 살고 있는 現實社會를 理解하고 있으면서 잘못된 世波를 바로 잡기 위하여 儒學의 根本思想인 仁과 義로서 正道를 暢達하고 理想社會를 成就하려는데 노력한 先驅의 學者 이시다.

先生의 學問에 잘 나타나고 있는 理想 社會建設의 理念은 바로 尊賢의 德과 正當한 人材登用을 朝廷에 促求하였으며 政治方法까지 細密하게 提唱하고 있다.

그 內容은 序文에서도 밝힌바 있으나 治道篇에 十目疏의 家政과 즉 家道에 至極함과 國本 世子를 輔養하여 나라를 바로 다스릴수 있는 임금을 敎養한다는 指論 또 朝廷을 바로 잡아 百官을 바르게 하고 萬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

또 中庸九經衍義를 깊이 연구하여 天下 國家를 잘 다스릴수있는 政治의 方法論을 論述하기도 하였으니 先生의 學問과 道學 그리고 人道精神도 여기에서 찾아 볼수가 있는 것이다.

첫째로 修身之道를 밝혔고 둘째로 尊賢之道로써 賢者를 尊敬하는 社會氣風이 造成되야 한다고 主張했으며 親親으로서 諸 父母兄弟의 和睦은 政治의 根本으로 삼아 즉 九經의 內容은 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까지 미루어 研究하였다.

이렇게 보았을때 오늘날 社會에서도 先生의 眞理는 永遠不變의 根本的 基本 이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내 父母兄弟와 和睦하지 않고서는 즉 가장 가까운 血緣관계에서 그 恩惠에 대한 報答을 모르고는 미루어 이웃과 民族을 사랑할수 없으며 또 民族을 사랑할줄 모르는 사람은 그 國家에 忠誠할수없는 것이다. 이렇게 人間의 基本은 즉 그 사람의 됄됨은 修身에서 출발하여 人類平和에까지 미쳐 갈수있으니 이것이 바로 晦齋先生의 人道精神이요 그의 基本的인 學問이다.

Ⅲ. 治道에 나타난 一綱十目疏와 政治方法

先生의 根本的 經世思想은 저 中國歷史속에서 일찌기 찾아 볼수있었던 孔子와 孟子의 仁義思想속에서 담겨진 人道哲學 내지 道德哲學을 通하고 있다.

晦齋先生의 治道篇에 나타나고 있는 政治的 識見은 孟子가 政事를 論할때 항상 仁

과 義를 主張했드시 先生역시 항상 仁義思想的 立場에서 政論을 주장한점은 바로 孟子의 民本思想과 一致點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항상 民本主義를 主張하던시 또 언제나 民에 의한 輿論政治는 勿論이요 公明正大하고 剛直한 言論政策을 받아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孟子政見章에서 찾아 볼수 있드시 民心을 天心으로 받아드려 언제나 民이 願하는 政治가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여 人才登用에서 부터 모든 行政까지 中庸을 벗어나지 않는 致中和의 道理를 잘 善用해야 바로 政治는 勿論이요. 즉 仁政을 베풀수 있으며 天地自然의 無私함과 같이 天에 順應하는 政治를 할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天의 德化로 즉 不變의 眞理, 天德, 春 夏 秋 冬이 변함이 없이 自然은 人間에게 德을주드시 治者의 道는 언제나 人民에게 仁政으로서 德治를 施行할 것을 促求하였을 뿐만 아니다. 人命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刑罰과 稅政에까지 人民의 生活을 두루 살피 억울한 苦痛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強調하였다.

晦齋先生이 가장 重要視하는 政論중에 一綱十目疏를 일일히 들어 파악하고 그가 願하는 治道의 內容이 무엇인가를 차례로 考察해 보는 것이 옳을것 같다.

위에 一綱十目疏에 一綱은 바로 君主의 立場에서 統治者로서의 몸가짐 또 治者로서의 道理 즉 內在한 心性에 世界를 어떻게 人民을 위하여 關心을 쓸 것인가하는 價值判斷力을 뜻하고 있다. 여기에 君主는 우선 學問을 익혀 언제나 治者의 마음은 大中至正의 位置에서 賢者를 登用하여 政事를 맡길수 있는 人格의 소양을 充分히 갖추고 있는 君主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十目疏⁸⁾는 一嚴家政 즉 宮廷의 政治는 嚴하게 다스려 私的인 請托行爲를 防止하고 治人의 道理를 다할것을 뜻 함이 一目이다.

二目的 養國本은 장차王이될 世子를 잘 敎育하고 德性を 함양하여 장차 治政을 할 때 民을 貴重히 여길줄아는 敎養을 기른다는 뜻이다.

三目的是 正朝廷 즉 朝廷을 바로잡아 紊亂해진 紀綱을 바로세워야 된다는 뜻이다.

四目的是 慎用舍인대 즉 人事行政管理를 걸저히 考하여 人材를 登用함에는 적소적재에 임무를 맡길것 그리고 民의 怨聲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五目的是 順天道 즉 自然不變의 理治와 같이 天道의 德化로 好生하는 것과 같은 法則을 根本하여 人民을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다.

六目的是 正人心 인바 즉 人心을 바로잡아 美風良俗을 溫和하고 淳厚하게 계승하여 社會人心을 바로세워 서로 信義있는 生活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보겠다.

七目的是 廣言路인바 즉 言論을 自由스럽게 暢達하고 民聲을 바르게 聽取하여 上下

8) 塗齋全書 卷七疏 pp.95~99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73年 影印本 參照. 一綱十目疏 其一曰嚴家政其二曰養國本, 其三曰正朝廷 其四曰慎用舍 其五曰 順天道 其六曰正人心其七曰 廣言路, 其八曰戒侈欲, 其九曰修軍政 其十曰審幾微.

의 民情이 通達해야 한다고 하였다.

八目は 戒侈欲인바 즉 財用을 근검 節約하여 經濟를 安定케 하고 上下모든 國民의 侈奢生活를 경계 해야 한다는 뜻이다.

九目は 修軍政인데 즉 國防을 튼튼히하여 有備無患으로 언제나 國保衛精神으로 安民을 꾀할것을 말했다.

十目は 審幾微인데 즉 國家를 다스리는데 國民의 輿論이나 國家에 있어서 萬事의 모든 일들과 幾微 즉 國內外的 混亂을 未然에 防止하여 國民이 安心하게 살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상과 같이 先生의 一綱十目疏에 나타나는 治道에 對하여 그 簡單한 意義를 要約해서 들어 보았다.

그러면 下記에는 直接 先生이 主張한 十目疏의 內容을 文集原文에 根據하여 자세히 取捨소개 하겠다.

1. 嚴家政論 (人格教育和 社會秩序)

家政을 嚴格히 다스리는 방도를 易에 例들들어 論證했다.

易經⁹⁾에 말하기를 王이 家道에 至極하면 憂恤하지 아니 하여도 家政이 吉하고 幸福한 것이다. 따라서 誠信하고 질서와 威嚴을 지키면 결국은 吉하리라고 하였다. 이 말은 바로 王者의 道는 먼저 修身하고 家齊하여 家道가 바르게 서므로서 天下가 太平까지 미쳐 간다는 大學에서 볼수있는 것이다.

옛날에 聖王은 먼저 自己몸을 공경하여 家道를 바로잡는데 힘쓰지 아니한者が 없으니 바로 家道가 이미 至誠하면 조심걱정 아니해도 天下를 잘 다스렸던 것입니다.

大概正家하는 方法은 内外의 限界를 엄격히하고 尊卑의 限界와 明分을 定하는 것보다 먼저할 일이 없습니다.

男子는 外에서 定位하여 어려움을 맡고 婦女는 內에서 定位하여 家事を 맡고 體貌를 整齊해야 한다고 하였다.

夫婦의 別이 즉 말은바 임무와 限界가 엄격해야 하듯이 嫡庶의 分이 定한 것은 바로 家政의 整齊된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家에서는 有德한 말은 따르고 聲色을 경계하여 彤管¹⁰⁾으로 史家가 記事하고 安朝에 規箴이되어 外의 事情은 內에 조심하고 內의 事情은 밖에 조심함이 옳고 賂物이 不正으로 通하지 않고 옳치 못한 請托이 行하지 않게 함이 家의 整齊인 것이라고 하였다. 대개 內에 慈愛가 지나치면 엄격하지 못하고 恩惠가 지나치면 義理가

9) 同上揭書 卷七疏 p.99 嚴家政 易曰 王格有家 勿恤吉 又曰 有孚威如終吉 傳者曰 王者之道 修身以齊家 家正以天下治矣. 自古聖王未 有不以恭己正家爲本 故有家之道既至 則不憂勞. 而天下治矣.

10) 彤管…後漢書, 女史彤管 記功書過에 찾아보면 붉은 칠을한 붓대를 말하고 있다. 女史가 記事規誨합적에 쓰는 붓이다. 同上揭書 p.99.

가리게 되니 家庭의 患은 禮法이 서지 않고 慢瀆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眞實로 中心에 誠과 信이 있고 外貌에는 威嚴이 있지 않으면 혹시 私情에 빠져 能히 스스로 克服치 못하면 어찌 宮壺¹¹⁾를 바로잡고 不義의 請托을 杜絶하고 姻戚을 檢制하여 禍亂을 막을수 있겠습니까?.

대개 誠信이란 것은 人心을 感動시키는 것과 威嚴이란 것은 眞實로 人心을 肅勵시키는것이되니 이 두가지가 並行해야 家道가 바르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威嚴이란 또한 스스로 自身이 먼저 엄숙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一動一靜을 감히 구구하지 않고 一嘖一笑를 함이 輕忽히 하지 않는다면 人心이 敬畏하고 家道가 自肅되어 嘻嘻¹²⁾하는데 이르지 않고 上下秩序가 있고 内外가 區別이 截然할 것이니 어찌 一人이 恩私를 믿고 典常을 錯亂시켜 賂物을 거두어 드려 朝政을 紊亂케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威嚴과 秩序가 확립되면 吉하다는 말은 自身을 反省해야 한다는 뜻이요. 自身을 反省치 않고 能히 그 家를 바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삼가 살피옵건대 殿下의 家法の 바름은 眞實로 論議할 점이 없습니다. 다만 그전에 後宮들이 愛情을 믿고 非分の 일을 冀望하는 變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陰邪가 權勢에 攀附¹³⁾하여 政事를 紊亂케하는 禍가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宮禁이 嚴하지 못하여 女謁이 盛行하여 官職을 除拜하고 事理를 判斷하는데 혹시 至公無私하게 처리되지 못하여 聖德에 累나 되지 않나 염려 됩니다.

臣은 지금 疎遠한 處地에 있으면서 傳聞하여 告하오니 信實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廷臣이 이런일을 論列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오니 어찌 所見없이 말씀드리겠습니까?

宮廷에서 隱密한 處所와 衽席宴安¹⁴⁾에 있을때는 그 情이 못건디어 道理를 害치고 있는줄 모르나 符驗이 즉 증거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遠延이 되니 君主의 마음은 마땅히 青天白日같이 바르야만 道理로 백성이 그 本을 받아 能히 따를 것이다.

禮記에 男子가 教養과 修身을 하지 아니하면 變氣가 天에 나타나 日食이 되고 婦人이 順한 德을 닦지 아니하면 變氣가 하늘에 나타나 月食이 된다 하였다고 하였읍니다.

만약 임금이 家政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또한 乾象의 變異가 될 것이니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삼가 원컨대 殿下께서는 스스로 德에 累가 될것이 없다고 마시고 惕然

11) 宮壺...宮壺事無不隱이라하며 宮閨와 同一함.

12) 嘻嘻...易經에 婦子嘻嘻란 뜻이며 戲笑와 同一함.

13) 攀附後漢書冠冑傳에 時所難 獨劉伯升耳 今聞大司馬 劉公伯升母弟尊賢下士 士多歸之 可攀附也 한말은 權勢있는 者에게 아무하여 出勢를 꾀한다는 뜻이다. 同上揭書 p.99.

14) 衽席宴安之際, 其流於情, 而害於理者, 雖苦至微. 여기에 衽席이란 말은 같은 잠자리를 뜻함이다. 莊子에 人所最畏者, 衽席之上, 飲食之間이라고 하였다.

15) 柔媚는 연약하고 美貌를 뜻하며 唐書庾準傳에 準務學術, 以柔媚自進, 得幸於王綰, 驟至中書舍人 柔俊과 같은 뜻임. 全書全上揭書 p.100.

히 警覺 省察하시고 奮然히 改過 悔心하시여 日月같이 밝게 살피시고 우뢰소리(雷) 같은 決斷을 내리시여 柔媚¹⁶⁾로 하여금 聰明에 干與하지 못하게 하고 愛倖으로 하여금 모두 道義에 決定케 하여 宮을 엄하게 하시고 邪徑을 社絕케 하신다면 장차 나라의 福됨이 이룰수 있겠습니다.

2. 國本論(指導者 資質 養成의 方道)

장차 王으로 모실 世子를 보필하고 教養함이 중요함입니다. 國本¹⁶⁾ 즉 世子를 輔養함은今日の 急先務입니다.

그 輔養하는 方道는 書史를 涉獵하고 古今만 談論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要在 人格을 涵養하는데 그 治道를 얻을수 있습니다.

옛날에 훌륭한 王은 太子를 教育함에 있어서 반드시 敦良方正하고 學文과 德을 겸비한 선비를 찾아 太子의 教育을 맡겼으며 아울러 宮人과 內臣까지도 重厚하고 細心한 人格者를 選擇하여 保護를 참가 했습니다.

따라서 그 前後 左右에 正人 아닌 사람을 있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出入과 起居까지 正道가 아님이 없게 하였으며 淺俗한 言行과 侈奢스러운 物件까지 太子로 하여금 접촉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항상 德性을 輔養하고 身體를 보호 함이 가장 먼저 해야 할 道理 입니다.

대개 學問의 道는 本과 末이 있으니 그 根本을 먼저하고 末을 뒤에 하는것이 德行으로 向하는 가장 좋은 規度입니다.

帝王의 心法과 聖賢의 教訓이 經傳에 실려있어 日星처럼 환하게 밝으니 마땅히 潛心熟講하고 優游玩味하여 단, 文辭만 誦讀할것 만이 아니라 그 理致를 解得해야 합니다.

또 그 깊고 깊은 뜻만 解得할 것이 아니라 그 實地를 履行해야 할 것입니다. 人倫에 詳細하고 事物에 밝아 그 理致와 所止를 파악하여 모든 心性을 알아서 天理에 通達하는 學問의 根本 입니다. 書史를 넓게 습득하여 古今을 通達하고 世俗의 變을 考閱하는 것은 窮理의 一面일 뿐이요 깊은 學問의 本務는 아닙니다.

항상 心이 道에 통한 뒤에 歷史를 보아야만 古人의 非是 得失을 한번 보고도 쉽게 파악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道에 通하지 못하면 갑자기 옛 史籍이나 두루 閱覽하여 汗漫¹⁷⁾하게 되니

16) 養國本 輔養國本, 今日之急務, 而輔養之道 非止於涉書史 談古今而已 要在涵養薰陶之得其道爾……教養太子, 必擇敦良方正 有學術德行之士, 以職輔導. 同全書上揭 p.100 參照.

17) 汗漫은 즉 너무 넓어서 그 道의 核點을 알기어렵다는 뜻이다. 「勿以汗漫曰道之廣」 「心不通於道 而遽欲遍閱史籍, 非徒汗漫無功, 恐或眩於是非邪正之歸, 而不知所以取舍矣」 同上揭 書卷七 p.100.

成果를 보지 못하게 되며 혹시 是非 邪正의 正道한 歸結 眩惑되어 그 正에 取舍할 바를 알지 못할가 염려 됩니다.

…지난번에 殿下께서 禪位하신다는 命令을 받잡고 至誠으로 사양하시며 飲食까지 전폐하여 마침내 임금의 마음을 건우게 하였으니 위로는 朝臣과 아래로는 人民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感激하여 울지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純임금의 孝한 至極함과 같은 盛德이 아니던 어찌 이렇게 되겠습니까? …… 다만 임금의 學問과 實行은 마땅히 二帝(堯舜) 三王이 행한 治道의 法을 따를 것이니 이상 三代外에 어느 歷史를 본 받겠습니까. 그외의 일들은 三王의 德治를 보지 못하고 오로지 心學만 하였을 뿐입니다.

後世와서 비록 歷史나 보는 것을 폐지 할수 없으나 그러나 恒常 本來 先後의 차례는 살펴보지 아니 할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士林사이에 假借하고 羽翼한다는 말이 있어 兇邪의 魁首를 引用하여 師傳의 地位에 두었으니 그 轉導한 처사는 道理에 어긋난 일입니다.

다행히 하늘이 宗社를 도와서 검은 구름덮인 것을 벗기어 없어지니 天에 太陽이 다시 밝은것 같았습니다.

마땅히 東宮賓僚의 職務를 慎重히 하고 名德의 선비를 널리 등용하여 勸講에 對備케하고 그 職務에 오래 머물게 하여 그 成果를 보여야 됩니다.

生覺하건대 緝熙¹⁸⁾의 學은 日就月將하여 眞實로 쉽게 단절될 염려는 없아오나 人心은 保障키 어렵고 그 氣習은 려우게 옮길 可能性이 있겠습니다.

一念이 存하고 亡하는데 따라서 聖인과 狂인이 區分되오니 輔翼의 道를 다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렇게 宗社의 遠大한 計劃은 이보다 더 급한 것이 없아오니 聖明께서는 깊이 軫念하시기 바라 옵니다.

…古今의 變과 治亂의 要點을 窮極적으로 研究하게 한다면 언제나 本과 末을 다하게 되고 東宮의 工夫가 完全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宮內에 講官의 人員이 不足한 관계로 하여금 겸직 시켰으므로 業務에 매우 바빠서 그 思慮가 어수선하여 侍讀하는데 專心으로 致誠할수 없게되었으니 이것 또한 輔導의 타당함이 못됩니다.

3. 正朝廷論(公明正直한 政府의 紀綱確立)

臣은 듣건대 王者는 마음을 바르게 하여 朝廷¹⁹⁾을 바르게 하고 朝廷을 바르게 하여 百官을 바르게 하고 百官을 바르게 하여 萬民을 바르게 하고 萬民을 바르게 해서 四方

18) 緝熙는 詩經에는 光明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於緝熙單厥心」

19) 正朝廷, 臣聞王者 正心以正朝廷正朝廷以 正百官 正百官 以正萬民 以正四方 夫朝廷者 四方之本原 王化之所由始也 本原清明 雖微末流之濁 不可得矣 全書同上揭書 卷七 p.101 參照.

을 바르게 해야 한다 합니다.

朝廷은 國家의 根本이요 王이 民衆에게 德化를 주는데 始發하는 곳이니 本源이 맑고 깨끗하면 비록 末流가 混濁하고자 하여도 혼탁해 질수가 없습니다.

만약 朝廷이 正道에 힘쓰지 않고 簿書나(출납부) 彈劾(남의비행)등의 末端과 구구한데만 滿足하여 頽風을 振作하고 民弊만 除去하려 힘쓴다면 바로 源泉의인 곳을 흐리게 해 놓고 下流를 막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대개 朝廷이 바르게 되는 것은 그 要領이 두가지가 있으니 반드시 먼저 紀綱을 바로 잡고 風節을 振作시켜야 能히 上下를 장차 定理하고 人道를 整齊하여 頽墮한 지경에 이르지 아니 할 것입니다.

여기에 風節이란 公道를 行함에 直道を 伸張하는 바이니 公道가 行치 못하고 直道가 伸하지 못한다면 紀綱이 설수 없습니다.

또 紀綱이 서지 못한다면 朝廷이 어찌 바르게 이루어 질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紀綱과 風節이 確立되는 것은 모두가 國王의 心性容心에 달려 있습니다.

三公 領議政 左 右議政이 바른 治道를 議論하여 六卿(六曹判書)이 職을 고루 分務하고 侍從과 臺諫이 그 사이에서 忠直論思하면 임금은 大公正한 마음으로 뒤에서 摠攝²⁰⁾ 하여 그 옳고 그른 是와 非를 判斷하여 善와 惡을 明察하여 進退시킴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王이 先入觀으로 하여금 偏聽獨任하는 失策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兼聽 博愛하는 公正을 잃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다만 正道가 있는데는 의심없이 決斷하고 奸臣들이 장난치 못하게 하고 佞人이 王의 마음을 移易하지 못하게 하여 언제나 公議에 따라 偏私의 處理가 없어야만 公道가 行하여 直道가 伸張케 되고 紀綱이 朝廷에 바르게 되어 内外 遠近이 감히 正道에 整齊될 것입니다.

또한 임금의 마음이 혹시 능히 公明正大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偏黨의 私心이 있으면 奸邪한 무리들이 地位를 엿보고 權勢에 攀緣하지 않는 자가 없으므로 恩寵을 希望함이 無所不至하여 위로는 王의 聰明을 眩惑시키고 아래로는 임금의 威福을 조롱할 것입니다. 비록 忠直한 言論과 公論이 있더라도 위에서 理解 納得 못하고 士君子의 바른 氣節이 꺾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士君子의 正直한 氣節이 꺾이고 公道에서 나오는 公論이 閑塞되면 紀綱이 무너지고 朝廷이 紊亂되는 법입니다…….

4. 慎用舍論(人事行政管理의 公正性)

人材를 쓰고 버리는 것은 慎重²¹⁾히 하는 것입니다. 伊尹²²⁾은 官職을 任命하되 賢

20) 摠攝은 統率管理한다는 뜻과 同一한.

21) 慎用舍 伊尹曰 任官惟賢材 左右惟其人 臣爲上爲德 爲下爲民 其難其慎 惟和惟一 孟子曰 左

材로서 任命할 것이며 左右의 輔弼할 사람을 擇할때는 반드시 適任者를 등용해야 합니다.

臣下의 職責은 德으로서 임금을 보필하고 따라서 民衆을 平安케 하는데 그 志義가 있는 것이니 人材를 任用함에 慎重히 考慮하여 可否가 相濟하고 始終이 如一해야 합니다.

孟子는 論함에 左右의 近臣이 모두 賢하다 하여도 그 말을 모두 믿어서는 안되며 또 다른 諸大夫가 모두 賢하다 하여도 그 말을 믿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온 나라의 國人이 모두 賢하다고 했을때 비로서 그 말을 살펴 賢材임을 믿고 등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반대로 左右의 近臣이 모두 不可한 人材라 하여도 그 말을 믿지 말 것이며 또 諸大夫가 모두 不可하다 하여도 그 말을 듣지 말 것이며 國人이 모두 不可하다 해야만 그 말을 살펴서 不可함을 확인한 뒤에 쓰지 말 것이라 하였다.

대개 人材를 쓰고 버리는데 成敗는 國保의 安危가 달려 있으니 옛날에 明王은 特히 人材를 씬에 慎重히 하고 감히 소홀히 하지 아니 하였으니 반드시 衆論에 參酌하여 獨居할때를 잘살피고 그 賢能한가 奸邪한가 실상을 파악한 뒤에 昇進도 시키고 退職도 시켰읍니다.

賢한 者는 그 사람을 깊이 알고 독실히 믿어서 疑心하지 아니 했으며 不賢한 者에게는 그 사람을 明確히 살펴서 勇斷을 내려 다시 滯留치 못하게 추방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三代 夏, 商, 周, 聖王들이 賢材를 등용 한 方道입니다.

後世에 王들은 이 뜻에 밝지 못하여 舉措(들고제거함)에 우유부단 하여 賢人을 임용 하여도 능히 끝까지 正과 不正을 다스리지 못하고 信任치 못하였다.

…人材를 登用함에 한사람의 천거로서 任用하기도 하고 혹은 한사람의 毀謗으로서 退斥하기도 하였으니 심하게는 前일에 賢人이라하여 任用한 사람도 後日에 와서는 邪人이라 하여 誅戮하기도 하고 前일에는 奸臣이라하여 물리친 사람도 後日에 와서는 忠臣이라 하여 寵愛하기도 하였읍니다.

人材를 쓰고 버리기. 착오가 생기면 그 國家를 다스리는데 잘되고 못되는 것이 드디어 알수가 있습니다.

…臣은 가만히 살피웁건대 殿下의 마음이 賢한이를 좋아하고 奸邪한 者를 미워함이 처음부터 公平하셨으니 항상 어진 사람을 들으시면 비록 소원한처지에 있더라도 그를 選拔하여 빠뜨려 쓰지 아니한 바가 없었으며 또 그사람이 奸邪한 사람이라 알게 되면 비록 寵貴한 處地에 있더라도 조금도 용서하지 아니 하였으니 王께서 至極히

右皆曰賢 未可也 諸大夫皆曰賢 未可也 國人皆曰賢 然後察之 見賢焉然後用之 左右皆曰不可 勿聽 諸大夫皆曰不可 勿聽 國人皆曰不可 然後察之 見不可焉然後去之 蓋用舍得失……. 同上揭書卷七 十目疏 p.102 原文 參照.

22) 伊尹~堯舜時代의 賢臣之名.

明察하시고 公正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렇게 까지 公明하셨 겠습니까.

다만 遺憾스러운 것은 輔하는 臣下가 光明한 大道를 따르지 않고 暗昧하고 邪徑을 많이 따르게 되어 임금의 淸明한 政治에 累를 끼친것이 되니 수십년내로 人物을 進用退黜하고 縉紳을(官吏) 형벌하는데 公義에 합당치 못한 점이 많았습니다. 대개 人才를 進退 시키는데는 마땅히 公平正大한 論으로 決斷할 것이니 어찌 편견된 모략이나 奸邪한 兇計를 들어 黑白을 가릴수 있으며 자기와 반대 된다고 해서 함부로 排斥 하겠습니까.

密啓²³⁾와 아첨이 있다는 것은 先儒가 벌써 論辯하였으니 이런것은 마땅히 明王은 미워 해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漢나라 文帝가 長安에 도착하니 周勃이 조용한 곳에 서 會談하기를 要請하니 宋昌²⁴⁾은 말하기를 공이면 公의으로 말하라 하였고 私의이면 王者는 私가 없는 법이라고 嚴하게 경고 하였습니다….

모든 人才를 進用 退黜할 적에는 항상 慎重히 살피서 조그마한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따르지 못한 길을 밟아 王을 眩惑하는 자가 있을 때는 私없이 退黜하여 嚴하게 退斥시켜 太陽이 밝은 것 같이 한다면 비록 약간의 奸邪한 무리가 있더라도 틈에 들어 오지 못 할 것입니다.……

지금 公論에 排斥을 원망을 품고 틈을 엿보는 자가 반드시 옛날의 徑路를 꺾하고 있을 것이니 이런점을 깊이 살피시고 미리 防備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5. 順天道論(人心은 天心 民心所在把握)

다섯째 條目에는 王道에 順應²⁵⁾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先生은 말하기를 臣은 듣건대 天의 道 즉 自然의 理致는 生을 좋아하고 私가 없으며 聖人의 마음도 또한 生을 좋아하고 私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堯帝는 昊天에 順應하여 人時를 授與하고 모든 功績이 넓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을 본받아 生을 좋아하는 政治인 것이며 舜帝의 簡易로써 아랫사람을 대하며 寬厚로써 民衆을 다스리며 罰에 의심나는 것은 可能하면 관용으로서 罪를 주고 功이 의심나는 것은 重한 쪽으로 賞을 주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刑罰주는 것은 刑罰없이 될 것을 생각하되 조심 했다는 것은 또한 하늘을 본받아

23) 密啓는 비밀리에 王에게 올리는 글.

24) 宋昌은 人名이요 漢나라 사람이다. 漢高祖를 따라 山東에서 起兵하고 뒤에 代王中尉가 되었다.

25) 順天道 臣聞天地道 好先而無私 聖人之心 亦好先生而務私 堯之欽若昊天 敬授人時 以至庶績咸熙者 法天好生之政也 舜之簡以臨下 寬以御衆 罪疑惟輕……刑期無刑 欽之恤之者 亦法天好生之政也 人情莫不欲壽 三王生之而不傷 人情莫不欲富 三王原之而不困 人情莫不欲安……此亦無非順天施仁之政也. 同上揭書卷七疏 p. 103 參照.

生을 좋아하는 政治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壽를 원하지 않는 이가 없으므로 三王은 民衆을 살리고 傷害하지 않았으며 또 사람마다 富하고 싶지 않으니까 없으므로 三王은 民衆을 厚하게 하고 民衆을 困窮하게 하지 아니 하였읍니다.

이렇게 人情은 安定을 원하지 않는자가 없으니 三王은 民衆을 보호하고 危殆롭게 다스리지 아니 하였으니 三王은 民衆의 勞力을 節約하여 괴롭히지 아니 했으니 이것이 바로 天道에 順應하여 仁으로서 다스리는 政治가 아니겠읍니까.

三代以下에 와서 天道에 순응한이는 漢나라 文帝와 宋나라 仁宗일 뿐입니다. 당시에 하늘에 있는 星文이 자주 변하고 日月이 凶을 보여 災異가 자주 겹쳤으나 두 君主는 스스로 德을 닦아 天에 順應한 道理로서 民心을 잘 받들어 재화를 물리쳐 오히려 祥瑞롭게 되어 禍를 버리고 福을 받게 되었읍니다.

위와 같이 政事를 天道에 따라 순응하여 天을 感動시킨 道를 살펴 본다면 또한 生을 좋아하고 私를 없이 하는데 있을 뿐입니다.

또 그들은 恒常 自己의 걱정을 어려움으로 삼지 않고 오로지 天下의 큰 걱정과 근심을 걱정으로 삼았었다.

또 自己 만이 樂을 樂으로 좋아 하지 않고 天下가 다 즐거워 하는 樂을 즐거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一夕의 굶주림을 참고 無窮한 生命의 誅殺을(草木금수) 삼가 하였으니 사람에게겐 사랑을 베풀고 만물에 恩惠를 주니 오로지 仁한 至誠에서 나왔으니 그들이 人心을 믿고 天地에 和氣가 感應한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殿下께서는 하늘을 공경하시고 百姓을 對하시때, 厚하게 하는 생각이 至極하시어 惻怛 寬大한 教旨가 수차 내려오으나 아래에 있는 官吏들이 殿下의 뜻을 奉行치 못하여 民衆이 고루 惠澤을 받지 못하고 困窮함이 전일 보다 더 심합니다.

臣은 惶恐하옵게도 殿下의 하늘 같은 뜻을 본받아 生을 좋아 하는 마음이 혹 誠實하지 못한 점이 있어 이렇게 말씀 드리오는 것인줄 모르겠읍니다.

...지금 世上에는 刑罰이 잘못되어 監獄가운데는 반드시 원통 억울하게 죽는 魂靈이 많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權奸이 政權을 장악하여 너무 가혹한 刑罰을 追求타가 여러번 獄事를 이르게 참혹한 일이 있었읍니다. 이런 일들을 殿下께서 仁政으로서 人民을 愛護하시고 愛物하시는 마음으로 어찌 惻然한 생각이 변하여 후퇴 하겠읍니까.

지금 寺院을 毀撤하고 僧徒들을 邪教로 추방하는데 그 時期를 明白히 하여 人命에 害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해 官吏를 보내어 寺院毀撤을 할적에 날씨가 따듯할 때를 택하지 않고 마침 엄동설한에 하게 되니 僧徒가 놀라 달아나고 또 食糧까지 잃게 되고 의지 할곳이 없읍니다. 춥고 배고파 함께 학대를 받으니 늙고 병들어 힘없는

者는 구렁에 굴러죽고, 또 건강한 자들은 서로 모여서 도적이 되었으니 점점 良民의 侵害가 극심해 집니다.

옛날 曹彬²⁶⁾은 子弟들이 그 집수리를 할려고 할때 극구 말리면서 지금 추운 겨울에는 담장과 瓦石사이에 百虫이 生命을 隱居하고 있으니 그 生命을 살해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읍니다.

어진 사람은 人間에 對해서는 勿論이요, 심지어는 微物에 대해서 까지 차마 傷害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임금께서 어찌 人에게(즉僧) 對함이 그럴수가 있겠읍니까.

寺院을 철폐 하는데도 또한 仁聖의 生을 좋아하는 뜻에 어긋나게 됨을 안타까와 이 말씀을 올립니다. 삼가 請願컨대 萬物을 살리는 마음을 體得하시고 모든 사람은 다 兄弟라는 이치를 생각하시어 仁으로써 民을 불쌍히 여겨 救하시고 신중히 하시어 刑罰을 삼가할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純誠에 근본하여 文飾²⁷⁾ 만을 내세우지 않고 天道에 順應하면 變異를 消滅하고 幸福하게 될 것입니다.

6. 正人心論(民弊除去 및 美風良俗宣揚)

人心을 바르게 하여 不信 風潮를 몰아내고 서로 믿고 사는 사회를 이룩하라고 한 뜻이 正人心論이다. 臣은 듣건대 人心이란 것은 天下安危에 根本입니다.

人心²⁸⁾이 바르면 옳은 것은 옳은 것이 되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 되어 公論은 위에서 行하고 風俗은 아래에서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人心이 바르지 못하면 옳은 것을 그르다하고 그른것을 옳다고 하여 公論이 위에서 行하지 않고 風俗이 아래에서 類廢될 것이니 나라를 다스리기 어려워 興亡의 根源이 發端되지 않는 것이 없읍니다.

三代之 世上에는 人心이 바로 잡혔는데 그후에 와서 楊朱 墨翟의 學說로 인하여 世上을 혼란케 하고 蘇秦 張儀의 辯論으로서 세상을 험뜯어 人心이 바로갈 方向을 잃게 되어 功利를 숭상하고 仁과 義로움이 廢棄하게 되니 天下가 드디어 크게 혼란하여 졌다.

……이로부터 뒤에는 歷代의 興하고 亡하는 것에 관계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지나간 歷史를 생각하면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26) 曹彬은 宋나라 靈壽人이다. 字는 國華요 宋太祖를 도와 天下를 平定하였다. 天性이 清廉 潔白하고 또한 仁恕하여 蜀과 南唐을 정벌 할때 人民을 단 한 사람도 부당하게 해치지 않고 物件도 욕심내지 않은 人物이다. 全書 p. 103.

27) 文飾은 南史每有惡事에 必曲爲文飾이라 하였는데 眞實없이 外面치레만 한다는 뜻임.

28) 正人心 正聞人心者 天下安危之本也 人心正 則是爲是 非爲非 而公論行於上 風俗美於下 人心不正 則以是爲非 以非爲是 而公論不行於上 風俗頹敗於下 國家理亂興衰之源 未有不始於此者也 三代之世 人心正矣 而進其衰委 亂之以楊墨之說 毀之以蘇張之論 人心始失其正 而尚功利 棄仁義天下遂大亂矣……自是以下 歷代興廢 莫不以是 考之前史 灼然可徵 蓋人心之邪正 由於教化之得失 教化明 則人皆向善慕義 而人心以正矣……聖 明深思遠慮 而留意焉. 晦齋全書卷七 十目疏 pp. 103~4 參照.

대개 人心이 바르고 올바르지 못한 것은 教化가 잘 시행되고 있느냐 시행되지 못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따라서 教化가 잘되면 사람마다 모두 善한 道로 行하고 또 옳은 일만 생각하여 人心이 바르게 될 것이며 教化가 밝지 못하면 사람마다 모두 利欲에 따르고 옳은 일을 버리어 人心이 바르지 못할 것입니다.

삼가 살피 옮건대 우리 王朝에서는 三綱²⁹⁾을 建立하고 禮義廉恥를 張大하여 教養함이 道가있어 節義를 볼수가 있었습니다. 殿下께서 王統을 계승하여 亂을 다스리고 질서를 바로 잡으시니 선비의 風習이 무척 새로워지고 또 人心까지 바로 잡혀 자기 몸 가짐들이 당당하여 영광스럽게 세상을 사는이도 있습니다.

前代의 法을 배우고 行實을 닦는 것을 高尚히 여기고 時俗을 따라 祿俸을 求함을 野卑하게 여겼습니다.

이때에는 朝廷이 깨끗하고 風俗이 크게 변하여 天理가 밝아지고 人欲이 마음대로 문란하지 아니 했습니다.

不幸히도 朝廷의 政治가 변경되어 人心이 어지러워져 옳음을 옳은 것으로 알지 못하고 그른 것을 그른 것으로 알지 못하게 되어 士의 習性이 날로 卑汚한되로 나가 世上の 風俗도 드디어 퇴폐되어 民族의 正氣는 사라져 갑니다.

奸兇들은 임금을 無視하는 마음을 품고, 政治를 어지럽게 하니 朝廷의 威勢에 따라 아부하는데 뒤떨어 질가 염려하여 잘못을 저지르니 人心의 不正과 선비의 節義가 극도에 頹廢될가 걱정됩니다.

人心이 바른 것을 이르면 선비의 節義가 서지 못하고 선비의 士節을 잃게되면 風俗이 무너져다시는 구제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되면 鄉里에는 一般 國民이 父母님께 孝道하고 宗族에는 和睦하던 風俗이 없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淫亂케한 음폐된 형벌이 많을 것이며 恩義를害치고 人倫道德이 타락되고 天命을 거역하여 義理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러한 紊亂한 風俗이 中央과 地方에서 일어나면 폐로는 士의 집에서도 퇴폐 風潮가 일어나게 되어 차마 말 못할 지경에 이를 것이니 和氣를 傷케하여 災異를 당하게 한것은 결국 人心의 不正에서 관계 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人心과 風俗은 國家의 元氣이니 元氣가 消耗되면 命脈을 오랫동안 이어갈수 있겠습니까.

이점을 말씀 드리자니 痛哭할 지경임을 모르겠습니까 마는 임금께서 주야로 政事에 골몰 하시고 걱정하시어 일찌기 이상과 같은 問題들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朝廷이 변했고 임금의 政治도 새로히 되어가는 中에 必然的으로 人心을 바로 잡고 風俗을 厚하게 하여 元氣를 보호하고 國家를 발전 시켜야 될 것입니다.

29) 三綱, 君臣, 父子, 夫婦의 道를 뜻함. 君爲臣綱은 君은 臣下에게 모범이 되어야하고 父는 子息에게 父母다워야 한다. 父爲子綱 夫爲婦綱은 夫婦즉 남편은 婦人에게 할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뜻이 三綱이다. 同上揭書 p.104.

教化를 成就하여 하늘 끝까지 五倫을 펴서 淳厚한 紀綱을 바로잡아 民弊를 重視한
을 밝힌다면 人心이 바로 잡혀 良俗도 계승되어 다시 이터날 것입니다. 조정과 生民
이 長久히 지속할 道理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도 세상에서 疎忽하는 이가 많으니 聖明
께서 깊이 염려 하시어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7. 廣言路論(民衆의 輿論 및 言論保障)

言路를 넓혀 民聲을 重히 여겨 여론 政治에 힘써야 된다는 뜻이다. 臣은 듣건대
옛날에 天下를 다스릴때 朝廷에는 進善旌³⁰⁾과 誹謗木이 있었다 하니 治道를 通하게
하고 直諫하는 사람을 登用한 것입니다.

孔子는 舜帝의 大智를 稱道하시되 항상 남에게 묻기를 좋아 하면서도 저속스런 말
을 살피기를 좋아하여 바로 잡아주고 또 나쁜점은 숨겨주고 장점은 칭찬하여 또 좋
은 점중에서도 다시 兩端을 비교하여 그 中間을 擇하여 民에게 政治를 施行한다 하
였습니다. 대개 天下의 이치는 한이 없으며 人間의 所見도 또 한 없이 같지 않은 점
이 많습니다.

故로 聖智의 君主도 또한 衆論을 널리 받아드리고 民衆³¹⁾의 여론을 널리 採擇하여
同과 異의 理論을 참작하고 可否를 살펴서 그 中을 擇해 善政하였습니다.

옛날 聖帝 明王의 政治가 正大 光明하여 青天白日처럼 하늘에 구름 한점없이 깨닫
힌 道를 썼던 것입니다.

唐太宗이 中書 門下省에 命하여 西省이 서로 規正해 놓고 일의 至當함을 구하는데
힘쓰고 附和雷同³²⁾하지 달라고 하였으니 또한 본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개 좋은 藥
은 甘, 辛, 寒, 熱 등의 藥의 特性을 합하여 뭉친 까닭으로 서로 補助하고 서로 制御
하여 病을 치료할수 있는 能力이 있습니다.

또 음식의 좋은 맛은 시고 짜고 달고 쓴(酸 鹹 甘 苦)등 味料를 합하여 조화된 까
닭으로 그맛이 사람의 입에 잘 맞아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言路를 施政에 받아드리는데 있어서도 藥이나 飲食의 맛과 같습니다. 쓴약
도 藥이되고 짜고 맵고 단 음식도 調和를 이루면 좋은 음식이 되듯이 만약 반드시
취할것만 취하고 그 外것을 버린다면 항상 물에 물탄것 같이 그 맛을 알수 없으니 그
것은 맛을 느끼지 못할 것이니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30) 進善旌과 誹謗木은 中國歷史上 古代堯帝때 設置한 제도인데 善言을 진언하는 사람이 서있
도록 하는 것 나무를 즉 誹謗木을 세워놓고 모든 民聲을 거기에 기록하게하는 오늘 여론한
과 같으며 民意를 청취하는 기구임.

31) 廣言路 臣聞古之治天下 朝有進善之旌 誹謗之木 所以通治道 而諫者也 孔子稱舜之智曰 好問
而好察選言隱惡而揚善 執其兩端 用其中於民 蓋天下之理無窮 而人之所見 亦多不同 故雖聖智
之君 亦必廣迎衆論……曰可, 曰否 可否相濟……而務合於理 曰是曰非是非相參……而蕩蕩平平
之治 庶復見矣 惟 聖明留食焉. 同上揭書卷七 pp.104~5 參照.

32) 附和雷同은 主見없이 남의 意見에 따라 右往 左往한다는 뜻 禮記에 있음.

臣은 살피건대 지난번에 弊端은 朝廷에는 大中 至公의 道가 없고 偏好惡의 私만 있었으니 즉 자기와 뜻을 합한 자는 進用하고 뜻이 자기와 어긋나는 자는(즉 言論)退斥하였읍니다. 말이 자기와 같은 자는 좋아하고 말이 자기와 다른 자는 미워하며 자기와 같은 이는 正人이 되고 자기와 다른이는 邪人이 되었던 것입니다.

士林은 唯唯諾諾³³⁾의 태도가 많으며 朝廷에는 謇謇諤諤³⁴⁾(正直)의 氣風이 없어져 大小官吏가 서로 呼應하여 마침내는 주견없이 남의 의견에 좌우 됐던 것입니다.

위와같이 奸兇들은 임금을 속이고 私私로운 情으로 行하여 國政을 어지럽혔으나 임금께서 알지 못하셨으니 이런 혼란 할때 사람마다 모두 直言하여 오해를 받으면 官職을 退出케 되니 그 누가 다시 指鹿爲馬³⁵⁾의 그릇됨을 분별 하겠습니까.

附和雷同(주견없이)의 禍가 여기까지 극도에 달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朝廷이 다시 맑고 政治가 많이 安定되었으니 지난날의 잘못된 점을 改革하여 淸明한 政治를 새롭게 해야 겠읍니다. 또 지난 번에 있었던 侍從이 進言했을때 王께서 時議에 어긋난이 있다하여 侍從을 斥黜시켜 外職에 補하였다 합니다. 만약 言官으로 있으면서 그 氣風도 없고 節義가 없이 公論에 苛탄을 당하게 되면 도리어 奸兇들의 腹心을 물려 숨겼다가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두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朝野의 公論에 있는 言官들은 매우 두려워 말하는 것을 경계하게 되고 忠言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니 이런일들은 國家에 福이 못하고 禍가 됩니다.

옛부터 君子라야만 能히 天下의 意思를 通하게 한다 하였읍니다. 옛부터 아랫사람의 의사를 통하지 않고 政治를 잘하는 者는 있지 않았읍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殿下께서 中和의 表準을 세우시고 偏黨의 氣習을 없애 버리어서 人才를 登用할 때는 近親간을 莫論하고 다만 그 사람의 사람됨과 德性을 참작하여 正直함을 살피 登用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을 들을때엔 자기 의사와 다르거나 같은 것은 介意치 마시고 옳고 그른 것만 살피면 됩니다. 可타 否타하여 可否가 서로도와 理致에 合하기를 힘쓰고 옳고 그른 是非를 참작하여 中에 歸正되기를 힘쓰면 모든 朝臣이나 民衆속에 들어있는 嘉言이 숨겨있지 않고 公道와 公論이 正直하게 서게 되어 나라에 患이 생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施政이 된다면 장차 國家에 蕩蕩平平³⁶⁾의 政治를 다시 볼수 있을 것이니 聖王께서 留念해 주시기 바랍니다.

8. 戒侈欲論(勤儉節約과 奢侈風潮淨化 및 國力培養)

33) 시키는대로 順從하고 他의 意思에 비판없이 따른다는 뜻(史記諸大夫朝 徒唯唯 不聞周舍諤諤)

34) 正直하다는 뜻이며 後漢書에 廣納謇謇 以聞四聰 또 史記에 千人之諾諾 下如一士之諤諤.

35) 사슴을 가르켜 말이라고 고집하는 뜻 즉 是非의 正과를 전도시킨다는 뜻임.

36) 蕩蕩平平은 書經에 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 여기 蕩蕩은 廣遠이요. 平平은 平易이니 즉, 이쪽이나 저쪽에 치우치지 않고 正位置에서 있다는 뜻임.

근검절약과 사치 방종에 빠지지 않고 재용을 아껴쓰며 仁德으로서 위기에 처해있는 社會氣風을 바로잡아 國家를 튼튼히 하여 福祉社會를 이루어야 된다고 主張하였다.

臣은 듣건대 恭儉이란 人間生活의 壽福의 本源이요, 侈欲³⁷⁾이란 危亡의 根本이라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帝王이 仁德을 쌓아 後孫에게 優足³⁸⁾한 道를 물려준 이는 먼저 스스로 恭儉하지 않고저 하지는 없으며 그 後孫이 이런점을 본받지 않고서는 亡身내지 奢侈放縱에 빠지지 않은자 없었습니다. 대개 君主는 마음을 깨끗이 가지고, 자신을 공정하여 검소하고 절약된 생활에 힘쓴다면 心慮는 安靜되어 마음 속에는 淸純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밖으로는 殘賊³⁹⁾의 累가 없을 것이니 性을 修養하고 德을 涵養하게 되어 스스로 惠澤이 萬物에 미치게 될것이니 이것이 바로 福된 壽命의 根本이요 福緣의 基本인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못되던 財用을 浪費損傷하여 백성에게 害가 미칠 뿐만 아니라 心志가 放蕩해지고 隋欲이 節制가 없게 되어 生命을 殘害하고 法度를 敗壞시켜 마침내 國家가 받드시 亡하는데 이를 것입니다.

대개 君王이 崇高한 地位에 있으면서 富와 貴의 生活을 누리고 있으니 自身의 誠意正心의 工夫와 修身齊家の 行實이 있지 않으면 奢侈와 放縱生活에 빠지지 않는이가 없을 것입니다.

奢侈의 발단은 적은데서 始發되어도 그 끝에가서는 막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故로 저 유명한 舜帝가 漆器를 만들때 諫하는 이가 十人이나되고 紂王(목군)이 象箸(상아저가락)를 만들때 箕子가 걱정하였으니 대개 적은 일에서 부터 私欲을 막은 것입니다.

여기에 舜帝는 바른 直言을 받아드려 칠기를 만드는 것을 中止하였으니 장차, 聖人이된 것이고 紂王은 그 諫言을 받아 드리지 않았으니 侈欲에 방종하여 後에 滅亡된 所以가 됐으니 바로 이것이 萬世에 鑑戒가 아니겠습니까.

臣은 삼가 살피 읊건대 殿下께서 始初에는 政治가 淸明하여 財用에 근검 절약에 숭상 하시더니 王이 되신지 오래 갈수록 侈心이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宮庭의 器物玩好品등은 奢侈와 華麗한 것만 숭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王子의 宅까지 奢侈하기에 힘써 드디어 浪費가 많고 節制가 없으니 백성이 勞力에 시달리고 營繕⁴⁰⁾이 쉬지 않으니 兵卒까지도 勞役에 모두 지쳤습니다.

37) 同上揭書 卷七 十目疏 p.105 參照 戒侈欲 臣聞恭儉者 壽福之源 侈欲者危亡之本…同上揭書

38) 優足은 書經垂裕後昆에 道를後에 기친다는 뜻임.

39) 戕賊(친적) 친한 도적이라는 뜻 孟子「戕賊杞柳而後以爲桮棬也」.

40) 營繕은 晉書桓伊傳에 比軍營繕과 並已修整이란 말이 있는데 土木工의 勞動이란 뜻과 同一한.

…옛날에 奢侈와 浪費는 그 被害가 天災보다 더 甚하다 했으니 그 由來된 바를 反省하고 節約抑制할 바를 생각 하시지 않겠습니까.

書經에 보면 文王은 儉素한 衣服으로 百姓을 편안케 한 功과 백성을 잘 다스린 功이 있습니다.

…대개 君主가 能히 스스로 節約하고 萬物에게 까지 惠澤을 베푼다면 心身이 편안하여 백성에 이르기까지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國家가 오래 유지되어 效果가 클 것이며 나라에 平安이 성취될 것이니 奢侈를 숭상하여 백성을 해친 者는 하늘에서 罪를 必然的으로 내릴 것입니다.

伊尹은 儉約의 德으로서 永久히 政治를 計劃하면 정치가 잘 된다고 하였으며 易經에는 말하기를 天地가 節制가 있으므로 四時가 運行된다. 하였고 制度로서 勤儉節制하여 財物을 낭비하지 않으면 百姓을 害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殿下께서 私欲을 누르시고 欲心을 節制하여 儉素를 지키시고 奢侈를 제거하시어 天地의 節制를 본 받아 用度의 繁重을 節約하시어 治政의 本으로 하시면 天心을 받을 것입니다.

欲이란 것은 반드시 정신이 빠진것이 아니라도 그 뜻이 向하는데가 있다면 이것이 곧 侈欲인 것인니 대개 뜻이 向하는 바를 스스로 檢制할줄 못하는 것이 곧 精神이나 뿐 곳으로 빠질 징조입니다.

故로 程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君主는 마땅히 萌動하지 못한 欲心을 막아야 된다. 하였으니 이 말이 眞實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 德을 삼가하는 要領입니다. 바라건대 聖明께서 이말을 깊이 吟味하시기 원합니다.

9. 修軍政論(有備無患 즉 國保衛精神)

나라에는 언제 어느때 외침이나 혼란이 있을지 모르니 미리 國防을 튼튼히 하여 有備無患의 國保衛의 준비가 되어 장차 人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國家를 防衛하고 人民을 平安케 하는대는 養兵⁴¹⁾이 가장 急務이니 太平世上 인수록 軍備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옛날에 聖王은 世上이 平安할적에도 장차 어지러운때를 잊지 않았으며 오히려 閑暇한 時期에 兵器를 준비하고 있다가 危急할 때에 軍士의 力を 크게 뻗쳤으니 이것이 이른바 바로 防備有備無患인 것입니다.

…대개 國防의 根本的 意義는 人心의 和合과 信賴에 있습니다. 人心이 和合하지 못하면 一般 大衆의 뜻을 믿지 못하게 되니 비록 軍士 百萬이 있더라도 國防에 아무 効力을 낼수 없습니다.

41) 同上揭書 卷七 pp,106~7 參照. 修軍政, 衛國安民 兵爲最急 無虞之世 尤不可緩 古之聖王 治不忘亂 安不忘危…此所有備 而無患者也 蓋軍政之務 在於選將帥 訓士卒 廣儲蓄 利甲兵 修城堡 吾者而已 而軍政之本……固國強兵之要.

孟子는 말하기를 天時가 地利만 같지 못하고 地利가 人和만 같지 못하다 하였으며 孔子는 軍士와 食을 버리더라도 信은 없으면 망한다고 하였으니 사람이 信義가 없이는 설수없다고 하였습니다.

吳子⁴²⁾(吳起)는 나라에 人和하지 않으면 능히 軍士를 動員할수 없으며 軍안에 人和하지 못하면 勝戰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옛날에 聖賢과 良將들은 또한 和와 信으로써 그 나라를 튼튼히 하고 和와 信을 用兵의 根本으로 삼지 않을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人心을 收拾하여 和合하게 하고 衆志를 統一하여 信賴케 하는 것은 또한 才智와 勇力만으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要是 先王의 賢政을 본받아……孝悌로서 教育하고 禮義로서 익힌다면 백성들이 父母를 섬기고 妻子를 기르는 즐거움을 잃지 않으므로 사람마다 모두 위 사람을 親愛하고 長上을 위하여 죽을 마음이 있을 것이니 바로 和信이 그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임금의 恩澤은 오히려 미치지 못하고 임금의 教化는 오히려 行하지 아니하여 百姓의 여론은 愁苦 怨痛하다는 소리가 많고 士民에게는 忠信과 禮讓의 習俗이 없어졌으니 軍政의 根本을 잃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軍의 將帥는 한병(瓶)의 술을 강물에 던져 卒兵이 먹게한 恩惠도 있고 兵士의 등에있는 종기를 직접입으로 빨아 은혜를 입혀 고쳐준 장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將帥는 士卒를 대할때 사랑하는 자식을 대하듯 한 까닭에 그 士卒들은 忠誠을 다하여 싸워 죽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여 侵侮의 甚함과 勞役의 苦痛으로 怨聲과 비방의 소리는 참아 들을수 없는 지경입니다. 主將은 士卒를 對하기를 쓸모 없는 풀같이 대하고 士卒은 主將을 대하기를 원수같이 對하게 되니 또한 어찌 그 和와 信이 있다고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人心이 和合치 않고서는 衆志가 信賴하지 못할 것이니 土崩의 지경에 있음을 생각한다면 寒心스러울 뿐입니다. 변경에 조그마한 도적의 警報가 없는데도 軍卒들은 벌써 피로에 지쳤으니 그 잘못은 바로 將帥들이 兵士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그 根本的인 원인을 따진다면……대개 步兵은 勞役이 騎兵보다 더 고달플때도 그 保人은 二保만 있을 뿐이며 水卒은 勞役이 步兵보다 더 고달픈데도 그 保人⁴³⁾은 一保만 있으니 勞役은 더 苦役인데도 保人은 더 적어 졌습니다.

이렇게 軍卒이 견딜수 없게되어 한 保人이 이미 도망하니 자신도 또한 능히 保存

42) 吳子, 中國戰國時代 孫子兵法와 함께 戰術과 兵法에 有名한 사람이다.

43) 保人은 이름이요. 壯丁二人을 一保로 定하여 軍務에 服務하는 者에게는 保人 즉 家政을 돕는 사람을 정하여 補助하였던 것이다.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隣里와 宗族에게 督責하니 隣里와 宗族까지 도망하고 한卒도 役을 實行치 못하니 破産에 이르게 되어 怨痛함이 극도에 달하여 참아 볼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폐단은 臣이 直接보고 감히 상세히 告하오니 임금께서 政治에 밤낮으로 걱정하시어 어찌 불쌍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王道의 크고 貴重한 점은 時期에 따라 減損 增益하여 民生을 구제 할수 있으니 헤아려 保安하고 兵卒들의 休息과 便宜를 도모 한다면 그 救濟의 計策이 있을 것인데 어찌 窮弊가 극도에 달함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만약 舊惡을 버리지 못하고 폐습을 改革 못하여 救濟치 못 한다면 十軍이 못가서 步兵과 水卒은 장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西 北 二界는 滿洲族과 接境하매 防備가 더욱 時急합니다. 近來에는 兇軍이 더욱 심하여 굶어 죽는 백성이 많은데 朝廷에서 노력하고 救濟하고자 하나 모든 비축이 탕진되고 또 國防을 건고히 하고자 하나 民과 兵卒이 다 疲困하였습니다……지금 백성은 困窮하고 財物은 탕진 되어 온 나라가 허약한 지경에 왔으니 믿을것은 民心 뿐입니다. 臣은 원하옵건대 朝廷에서는 당연히 安靜을 지키고 하루속히 仁政을 베풀어 勞擾不急한 일은 하지마시고 鎮撫安集의 治道에 힘쓴다면 民心이 安定되고 國本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軍政이 整濟되며 國防에 이상없을 것입니다.

10. 審幾微論(將次國家興亡과 內憂外患의 對備策 및 情報)

將次 國家興亡 盛衰에 관한 對備를 미연에 알아서 政治의 方道策으로 준비 하여 安定된 社會建設을 꾀해야 된다는 것이다.

옛 書經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단 하루라도 앞일을 보지 못하는 사건들이 많은데 즉 一日이나 二日間에도 事幾는 萬이나 된다 하였으며 易經에는 오직 幾微⁴⁴⁾를 알수있는 까닭으로 앞으로 돌아올 天下의 事務를 미리 알수 있다고 하였다.

대개 기미란 것은 動을 隱微한 것이니 吉兇의 문제들이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天下 國家의 治亂興亡의 단서는 모두 극히 작은데서 시작하여 끝에 가서는 막을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故로 시냇물을 막지 않으면 혹시 滔天⁴⁵⁾의 洪水까지 이르게 될 것이며 작은 불길도 끄지 않으면 大火災까지 번질 것이며 草木의 싹을 꺾으면 大樑의 나무도 볼수 없을 것과 같습니다. 개미를(蟻穴) 소홀히 여긴다면 千丈의 제방 또한 튼튼치 못할것이니 매사에 미리 幾微를 살피지 않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44) 審幾微, 書曰 一曰二曰幾萬 易曰 惟幾也 故能成天下之務, 蓋幾者, 動之微, 吉兇之先見者也 天下國家理亂興衰之端……全書, 卷七 十目疏 pp.107~8, 審幾微條 參照.

45) 滔天큰물이름, 洪水의形容 書經에 洪水滔天 浩浩懷懷이란 말이있음.

옛날 大道로서 世上을 어지럽지 않게 政治를 다스렸으며 나라가 위태롭지 않을적에 미리 保全을 잘하였으니 곧 어지럽지 않은데도 어지러울수도 漸漸있고 위태롭지 않을 때도 또 위태로울 징조와 기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고로 현재 混亂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누적된 잘못의 발생이 오늘의 混亂입니다. 즉 위태로운 일이 위태로운 그때 그때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항상 편안한 時期에 일어난 것입니다. 幾微가 벌써 감추어져 있는데도 君主는 安富에만 습관이 되어 기미를 살피지 못하고 이미 기미가 나타났는데도 朝廷의 臣들은 官緣만 保存하고 몸만 아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上下人이 安逸을 꾀하여 舊習을 버리지 않고 苟且스럽게 지내며 앞에있어 急한 亂의 지경으로 들어가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예나 지금이나 通하는 근심입니다.

지금 目前에는 國家의 患이 없을 지라도 앞날에 禍亂의 幾微는 많이 걱정되오니 이같은 큰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正道가 盛長하고 邪道가 消滅되면 天下가 크게 通하여 民衆이 그 惠澤을 입게되고 正道가 消滅하고 邪道가 盛長하면 天下가 否塞하여 백성이 그 禍害를 입게되니 이것은 人心의 離合되는 원인이 되고 天命의 去就도 또한 여기에 左右되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朝廷이 不和하여 士林이 冰炭처럼 굳어 서로 이해 못하고 邪와 正이 區分없이 混動되어 서로 수십년간 生滅盛衰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混亂이 극도에 달하면 正道로써 다스릴 것을 生覺하게되고 否塞(막막함) 함이 극도에 이르르면 通泰함이 오게되는 것은 이치의 必然的인 것입니다.

지금은 羣陰이 消伏되고 陽德이 이제 亨通하니 泰道가 盛長되어 王化가 다시 順通할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臣은 항상 생각 하건대 宋나라의 羣臣들이 邪와 正이 서로 공격하고 治와 亂이 혼탁하여져 王安石⁴⁶⁾이 政權을 잡았을때 忠賢들을 一網打盡하고 邪人을 등용하여 天下를 敗壞시키고 生民들을 도탄에 빠뜨렸으니 이때 모든 人心도 떠나 버리고 天意도 싫었던 것입니다. 다행이 元祐의 初期에와서 老成大臣을 進用하고 여러 邪臣을 退黜하고 言路를 열어 下層에 있는 大衆의 意思를 通하게 하였었습니다. 또 新法을 폐지하여 백성의 폐해를 제거 함으로서 九年동안에 德澤이 天下에 심어 졌으나 小人들이 원망하는 자도 또한 많았습니다.

……대개 政治를 하는데 吉兇의 幾微는 萬民의 和協이나 不和에서 알수가 있습니다

46) 宋나라 撫州臨川江西人이다. 그는 仁宗에게 저 有名한 萬言書를 올려 政策的 勸告를 올리 功을 세운 功으로 宋神宗에게 翰林學士에 임명됐음. 또 副宰相에까지 올라 改革政治를 시도하였다.

다. 비록 吉兇의 否泰의 기미는 事物에 나타나지마는 實로 君主의 마음에 根源하고 있습니다. 君主의 一念이 바르면 吉의 道가 通泰의 始初가 되는 것이고 君主의 一念이 바르지 못하면 凶의 道로서 否塞의 由來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답으로 君이 그 根本을 바르게 하면 萬事가 다스려지고 조금이라도 道에 어긋나면 만사가 틀리게 된다 하였으니 聖明께서는 깊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一綱十條目은 治道에 하나도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며 그 실행하는 綱領은 殿下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殿下의 마음이 請明 純一하여 一念의 差誤와 一息間斷도 없이 위로는 天命을 받들고 아래로는 國家를 바르게 한다면 十條目이 施行되지 않는게 없으므로 政治的 治道는 이것으로서 完了 될 것입니다.

……오늘날 또한 殿下께서 時日을 아끼시고 自強不息하여 德을 닦아 하늘을 感動시켜야만 할 것을 잃으시면 안됩니다.

Ⅶ. 中庸九經衍義와 大道思想의 內容과 그 根本

여기에 九經이란 古代中國에 있어서 天下를 잘 다스리는데 그 政治的 大道를 內容으로 하여 中庸에 仔細히 소개하고 있다.

九經⁴⁷⁾은 먼저 修身에서 尊賢으로 始作하여 懷諸侯에서 끝나는데 그 아홉가지 名稱과 內容을 먼저 살펴보면 첫째 修身인데 수신은 먼저 자기 스스로 人格을 닦아 立道의 경지에 到達해야 한다는 뜻이니 九經에, 가장 重要的 始發이라 하겠다. 둘째 尊賢인데 어질고 착한 賢人을 尊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째 親親인데 이 뜻은 宗族과 父母兄弟 또 内外에 和睦하게 生活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네째 敬大臣인데 國家의 중책을 맡은 이를 공경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大臣을 王이 人格적으로 믿고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다. 다섯째 體君臣관계이다. 君臣관계는 서로 自己몸과 같이 믿고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다. 여섯번째는 ⑥子庶民인데 君은 일반백성을 사랑하기를 자기 친자식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다. 일곱번째는 ⑦來百工 모든 官員이나 人民은 貴와 賤이 없이 어루만져 모여들도록 한다는 뜻이다. 여덟번째는 ⑧柔遠人인데 먼데있는 백성까지 부드럽게 어루만져 君과 한가족같이 사랑이 넘쳐 흐르는 社會를 이룬다는 뜻이다. 아홉번째는 ⑨懷諸侯인데 강국이 약소국을 지배할때는 그 대하는 마음이 自身이 약소국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人道主義의으로 理解해 주어야 된다는 뜻이요. 또 지배를 받는 民族의 입장을 자기의 입장 같이 생각해

47) 晦齋全書 中庸九經衍義書, pp. 341~2. 成均館大學 大東文化研究院 1973年 影印本. 中庸凡爲天下國家有九經 ①修也, ②尊賢也, ③親親也, ④敬大臣也, ⑤體君臣也, ⑥子庶民也, ⑦來百工也, ⑧柔遠人也, ⑨懷諸侯也. 修身則道立尊賢則不惑, 親親則諸父昆弟不怨, 敬大臣則不眩, 體君臣, 則士之報禮重, 子庶民 則百姓勸, 來百工 則財用足 柔遠人 則四方歸之懷, 諸侯則天下畏之.

주어야 된다는 뜻이다.

이상과 같이 古代 中國歷史속에서 찾아 볼수있는 人道主義의 施正方法의 大道를 晦齋先生은 더깊고 넓게 研究분석하여 中庸九經衍義라는 제목으로 무려 그 內容을 詳細히 十七卷에 이르는 방대한 學問的 理論으로 研究 하였다. 따라서 別集九卷까지 論理的으로 밝혀 天下理致를 說明 하였으니 바로 이 內容을 通稱 晦齋先生의 中庸九經衍義라 소개하는 것이다.

1. 政治方道の 總論

九經에 있어서 政治的 方法論을 上記와 같이 하나 하나 簡約한 例를 들어 論하였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內容을 晦齋先生께서 깊이 研究한 學問的 考察을 하면서 그 實證을 찾아 보겠다. 晦齋先生은 于先 九經의 根本의인 意義를 先儒들이 實踐한 方道を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先儒 呂大臨⁴⁸⁾은 말하기를 天下國家를 다스리는 根本은 몸에 있는 고로 제일 먼저 修身이 九經의 根本이 되는 것이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반드시 師友관계에 親하고 公경할줄 알아야만 修身하는 道가 向上되는 까닭에 賢人을 尊敬함이 그 다음이 되는 것이다.

賢人을 尊敬할줄아는 道가 向上되면 家族親知 보다 먼저 實行할때가 없는고로 宗族을 和睦함이 그 다음으로 보았다.

이와같이 家에서 宗族 그리고 朝廷으로 미치게 되는 이유로 大臣을 公경하고 羣臣간에 一體感을 가짐이 그 다음으로 보았다.

이렇게 連關된 朝廷의 施政大道는 온나라에 미치게되니 一般的庶民을 자식같이 사랑하고 모든 百工(官員) 즉 중요한 人才들이 모여들어 오게되니 한나라의 善政의 大道는 天下에까지 미치게 되기 때문에 먼데있는 他民族까지 믿고 부드럽게 따라드니 어루만져 주변 나라까지 잘 다스릴수 있어 友邦國家가 많이 생긴다는 뜻이니 이것이 바로 九經의 根本思想이며 施正大道의 順序인 것이다. 羣臣을 나의 몸같이 대하고 百姓을 나의 子息처럼 대하는 것은 바로 臣下와 百姓을 대하는 참된 區別인것이다. 朱子는 이미 道가 立한다는 것은 자기 몸에서 完成되어 백성에게 儀表(師表)가 됨을 말함이니 이른바 君主가 그 表準을 먼저 세운다는 것이다. 또 疑惑되지 않게 한다는 理致에 疑惑되지 않음을 뜻함ियो 또 眩惑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에 迷惑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大臣을 公경하면 信義를 믿고 일을 맡기는(任)데 專一하면 小人들이 離間질 할 수 없는 까닭에 일에 奉仕할때는 眩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8) 宋나라 人으로 字는 與叔이요. 大防의 弟이다. 張載에게 受學하였으나 先生이 死後에 二程, 程顥程頤에게 受學하여 大臨은 羣書에 通達했고 文章力이 特出하였으며, 政治的 識見이 남달리 뛰어났다.

百工을 오게하면 달은바 임무를 서로 利用하고 農商이 서로 利用되니 國家의 財用이 裕足하게 되고 遠人 먼데있는 사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對해 주면 天下의 行人까지도 모두 기뻐하여 그 나라의 民衆이 바깥 道路까지 밀려 나오기를 원하는 고로 天下四方의 人心이 한데로 和合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주변 나라를 人道主義의으로 품어주고 자기 일 같이 걱정 근심을 염려 해주면 그 德化가 넓게 퍼져 天下어떤 나라도 그 民心의 總力量을 보고 畏服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九經의 偉大한 힘의 功効를 말한 것이다.

……또 或人이 九經의 意義 묻기를 九經이란 어떤 것이냐고 할때 朱子⁴⁹⁾는 대답하기를 內的인 문제를 專念하지 않으면 그 外를 다스릴수 없다고 했으며, 반대로 外를 整齊하지 못하면 또한 中을 다스릴수 없는 것이 다라고 하였다.

靜한적에 存養省察하지 못하면 그 本을 세울수 없다고 하였고 動한적에 또 省察하지 않으면 그 私欲을 克服할 수 없는 것이다. 故로 齊明 盛服하여 禮節에 어긋나면 動하지 않고 内外가 서로 修養되고 動靜이 어긋나지 않게 되니 修身의 要가 되는 所以이다.

……讒邪를 除去하고 女色을 멀리하며 財貨를 賤하게 여기고 德行을 貴重히 여기는데 힘쓰는 것이 賢人을 勸獎하는 道가 되는 것이다. 만약 親하면 그 사람을 貴하도록 眞實로 해주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같이 富하도록 하는 것이니 兄弟와 因戚들을 서로 疎遠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 까닭으로 位를 높여 주고 祿을 厚하게 하며 그 好惡를 같이 하는 것은 親親의 道를 勸獎함이 되는 것이다. 大臣이 細務를 친히 보살피지 않게 되고 오히려 道理로써 임금을 섬기는 者는 스스로 道理를 다할수 있게 되니 이렇게 官을 믿고 使命을 맡겨 변창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大臣을 勸獎하는 道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한 誠意를 다하여 그 私情을 救恤하면 士가 父母를 섬기고 妻子만 기르는 累가 없게 되니 달은바 業務에 즐거히 힘쓰게 되니 俸祿을 厚하게 주는 忠臣을 登用할수 있어 士를 勸勉하는 道가 되는 것이다.

백성은 平安하지 않고자 하느니가 없고 또 富裕하고자 않는 이가 없으니 그런 까닭에 時期를 맞추어 百姓으로 하여금 使役시키고 稅金을 더러주는 것은 바로 百姓을 勸勉하는 道가 되는 것이다.

……九經은 實際를 總合하여 修身, 尊賢, 親親에 벗어나지 아니 하니 敬大臣 體羣臣은 尊賢의 差等에서 推及된 것이요 子庶民, 來百工 柔遠人 懷諸侯는 親親의 降殺에서 推及된 것이다. 또 尊賢하고 親親하는 所以에 있어서도 修身이 至極하여야만

49) 同全書 上揭書, 總論爲治道篇 卷一 p.344 參照.

朱子曰 不一其內 則無以制其外, 不齊其外 則無以養其中靜而 不存則無以立其本 動而不察 則無以勝其私, 故齊明盛服, 非禮不動, 則内外交養, 而動靜不違, 所爲修身之要也……. 所以爲勸大臣之道也.

각각 그 이치에 합당하여 잘못됨이 없을 것이라 하였다.

或人은 親親하면서 事를 맡기지 않는다고 한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親親과 尊賢이 같이 行하여도 事理에 어긋나지 않는 道理이기 때문이다.

다만 親親한(宗族親睦) 이유로서 賢한가 賢치 않는가를 묻지도 않고 경솔히 일을 맡겼다가 不幸히 혹시 任務를 감당하지 못하고 罪로 다스린다면 恩이 傷하게 될 것이고 또 罪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法을 위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살피 보았을때 富하게 하고 貴하게 하고 親하게 하고 願하게 하면서도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은 바로 親親의 宗族을 正하게 보전하기 위한 까닭이다.

……朱子는 天下의 事는 本과 末이 있으니 그 本을 바로 잡는 자는 비록 迂廻緩慢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쉬우며 그 末을 救하는 者는 비록 切緊 至近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成功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옛부터 論事를 잘하는 자는 반드시 本末의 所在를 깊이 밝혀서 그 根本을 먼저 바로 잡았던 것이니 本이 바르게 되면 末이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朱子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天下萬事가 큰 根本이 있고 每事의 中에도 또 작기 要切處가 있다고 하였다. 이른바 큰 根本이란 것은 眞實로 君主의 心術에 벗어나지 않으며 要切處도 原來 大本이 이해야만 可히 알수 있는 것이다.

賢한 宰相을 任用하고 私門을 막는 것은 政治를 바르게 하기 위한 要道이고 良吏를 選任하고 賦役을 輕減하는 것은 養民하는 方法의 要道이다. 또 將帥를 公選하고 近習을 經由하지 않는 것은 治軍의 要道이며 警戒함을 듣기 좋아하고 아침하는테로 이끄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聽言 用人의 要道이니 이상과 같이 모든 일에 미루어 要道を 생각하면 나머지는 모두 알수있는 法이다.

그러나 大本이 確立되지 못하고 참여할 수 있을수 없으니 이것이 바로 옛날에 天下를 다스리고자 한자의 正心 誠意를 할려는 根本의 汲汲함이 었다.

2. 修身明理의 道

政治나 社會지도 내지 家政에 이르기 까지 가장 풍요한 것은 個人으로부터 修身 즉 스스로 人格의인 德性을 함양하는 것이 가장 于先되는 것이다. 治者의 位置에 있는 君主의 一身은 眞實로 天下國家의 根本이되고 敬謹한다는 一言은 또한 修身이 根本이 된다.

따라서 항상 스스로 敬謹하기를 생각하되 매일 오늘은 이같이 하고 또 내일도 이같이 하여 언제나 修身德性이 一致하지 않음이 없게 하여야만 永遠한 修身으로서 施政의 一貫性을 이룰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朝夕으로 변하여 아침에는 부지런 하고 저녁에는 게을리 한다면 과연

무엇이 유익 하겠는가.

…臣은 생각컨대 帝王의 齊家 治國 平天下의 根本이 모두 修身에 있는 것으로 思
要됩니다. 皐陶⁵⁰⁾가 舜에게 謨猷(즉 국사를 計劃)를 陳述할 적에 먼저 이렇게 言及
했습니다. 대제 舜帝는 大聖의 資質으로써 德이 갖추어져 앎이 없었고 몸은 修身되
지 앎이 없었으니 스스로 天下의 模範이 되었으니 어찌 남의 進言을 기다렸겠습니
까. 進言을 듣기전에 먼저 實踐하셨습니다. 대개 君主는 一身이 天子의 尊에 處하여
萬邦의 標準이 되었으니 一動一靜을 上帝(하늘)가 감시하여 吉과 兇의 順應이 있었고
一言一行을 萬民이 觀聽하여 조칠것과 따르지 않을 것을 經驗이 있었으니 비록 明哲
한 聖君이라 할지라도 修身을 謹慎하지 않고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子天는 항상 民의 父母가 되어 먼저 스스로 修身하고 삼가 해야할 뿐만 아
니라 民이 好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고 民이 惡하는 것을 같이 싫어 할줄아는 王이라
야만 民의 父母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朱子는 이렇게 말했다. 皇이란 것은 君主의 稱號요 또 極이란 것은 至極의 義의
뜻이며 標準되는 것의 名이니 四方의 中央에 있어 四外에서 中央 즉 君主의 行動만
바라다 보고 있다고 하였다.

君主는 一身이 至極히 尊敬의 對相에 있으므로 四方에서 즉 外에있는 萬民이 주시
하고 있으니 東에서 바라보는 백성도 君主 즉 中央을 바라보고 西에서도 바라보고
南에서도 바라보고 北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萬民이 있으니 바로 이것이 天下의 至中
인 것이다. 이렇게 君主는 天下의 標準의 위치매 있으니 그 仁함이 天下의 仁이 되
어 萬民에게 고무 영향을 주어야 된다는 뜻이다.

또 孝를 말 한다면 天下의 孝를 다하여 天下의 孝하는 者가 더할수 없게 할 것이
니 이것이 이른바 皇極인 것이다. 즉 皇帝 君主의 位置인 것이다. 또 大學에 天子로
부터 庶民에 이르기까지 일체 修身으로 根本을 삼아 야한다고 하였다. 그 根本이 문
란하고 未은 다스린 적이 없었으며 따뜻하고 厚하게 할자에게 薄하게 해주고 반대로
薄하게 해줄 자에게 오히려 厚하게 해준다면 그런 일은 있을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陳祥道는 修身이란 것은 格物, 致知, 誠意, 正心에 쏟은 것이니 이같이 하지 않으
면 몸을 修養할수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몸이 닦아지지 아니하면 그 根本이 문란하게 될 것이니 본이 만약 문란되
면 國家를 어떻게 다스리겠는가.

例컨대 父母를 모시고 孝하지 못하고 陳祥道는 宋나라 福州人의 名이다. 그의 著

50) 同上揭書 p.355 總論修身之道 卷之二, 參照. 皐陶는 舜의 臣下요 法理에 通達했고 刑罰을
제정하여 獄을 단든사람 一名 북을 두드리는 나무토막이란 명칭도 있음. 原文…帝王 齊家治
國平天下之本, 皆在於修身 故皐陶爲舜陳謨, 道及於此, 夫舜以大聖之資, 德無不備 身無不修
自可爲法於天下 豈必有待於人言乎 蓋人君以一身, 履天位之尊, 爲萬邦之表, 一動一靜, 上帝
監臨, 而有休咎之應 一言一行 萬民觀聽.

述은 禮書와 論語全解가 있음.

兄長을 설기면서 能히 友愛하지 못한다면 이는 厚하게 할자에게 薄하게 하는 것이요 오히려 厚하게 할자에 박하게 한다면 어찌 天下의 父母를 사랑하고 어찌 天下의 兄長을 섬길수 있겠는가

또 中庸에 찾아보면 孔子가 말하기를 政治하는 것은 사람에 있으니 사람을 취하는 것은 바로 내몸(君主)에 있고 몸을 修身한다는 것은 道로서 하고 道를 닦는 것은 仁으로서 한다. 仁이란 것은 人이니 제일먼저 親屬을 和睦하게 하는 것이요. 尊賢을 존경하는 것이 禮節의 發生인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君子는 몸을 修道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몸을 닦으려고 하면 아버지를 제일먼저 孝道로서 섬기지 않을수 없으며 또 내 아버지를 극진히 섬기려하면 다른사람을 대접하지 않고 알수 없으니 따라서 다른 사람을 알지 않고서는 그 理致를 알지 안할수 없다.

朱子⁵¹⁾는 여기에 人이란 賢臣을 칭함이요. 身은 君主의 몸을 指稱한 것이다. 道란 것은 天下의 達道이다. 仁이란 天地가 萬物을 生生하는 것과 같이 사람도 稟得하여 사는 것이되니, 이른바 元이란 善의 長인 것이다. 君主가 政治를 하는 것은 賢臣을 얻는데 있으며 賢臣을 취하는 準則은 또한 몸을 닦는데 있으니 능히 그 몸을 仁하게 하면 君主도 있고 賢臣도 있으므로 政治가 잘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中庸에 말하기를 舜帝는 크게 알았다(大知)고 하였다. 舜帝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항상 문기를 좋아 했고 또 淺近한 말 살피기를 좋아하고 그말이 나쁜 것은 숨기고 좋은 것만 宣揚하여 그 兩端을 잡아 살피고 中道를 萬民에게 베풀었으니 바로 이것이 偉大한 舜帝가된 자질이라 하였다. 朱子는 舜帝가 大知가 된것은 그가 政治를 하는데 自己 독단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바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많이 취한 것이다. 가까운 말은 淺近한 말이니 가까운체 하고 하는 말 까지 살핀다면 善言은 빠뜨리지 않을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말이 善하지 못한 것은 숨기고 밖에 宣布하지 않으며 善한 것은 善揚하여 그 넓은 光明이 있을 것이니 사람이 누가 善을 즐겁게(樂告) 告하지 않겠는가. 위와 같은 善惡의 兩端을 잘 살피면 萬民衆論 不同的 極致를 이룰것이다.

德이란 날로 새로워서 萬邦의 民心이 한곳으로 돌아오니 王은 大德을 힘써 밝혀 天下中道를 세울수 있으니 中이란 것은 天下에 同有한 것이나 君主가 이를 세우지 않으면 백성이 스스로 中을 지킬수 없으며 禮義란 것은 中을 세우는 표준이 된다.

여기에 義는 心の 裁制이고 禮는 理의 節文이므로 義로써 매사를 裁制하면 일이

51) 全書 中庸九經衍義 卷二 修身一 p.357. 朱子曰, 人謂賢臣, 身指君身, 道者天下之達道, 仁者 天地生物之心, 而人得以生者, 所謂元者, 善之長也, 言人君爲政, 在於得人 而取人之則又在修身 能仁其身 則有君有臣 而政無不舉矣 爲政在人 取人以身 故不可以不修身 修身以道 修道以仁, 故思修身 不可以不事親, 欲盡親親之仁必由尊賢之義 故又當知人 親親之殺 尊賢之等 皆天理也, 故又當知天.

그 適宜함을 얻을수 있을 것이며 禮로써 마음을 節制하면 心의 正을 얻을수 있을 것이니 內와 外가 合德되어 中道가 成立되는 것이다.

大學에 이른바 明德을 밝히는 것은 至善을 다한다는 뜻이니 自身이 明德을 밝혀다룬 사람을 지도함이 大學에 있어서 新民인 것이다. 中은 民性의 本이다. 그러나 다만 事務로 인하여 옮겨 질수도 있는 까닭에 그 正을 잃게되니 聖人은 一身으로써 民의 標準이 되어 民이 추종케되어 中에 돌아오면 이것이 바로 建中于民인 것이다. 禮記⁵²⁾ 學記篇에 찾아보면 君子가 만약 백성을 化合하게 하고 美風良俗을 善揚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學問에 그 根本을 해야 된다고 하였다.

玉은 不琢하면 그릇(器)을 이룰수 없으며 사람 역시 배우지 않으면 道理를 알 수 없을 것이니 故로 옛날의 王者는 나라를 세우고 民을 統治 할때에 敎學이 先務가 되었고 항상 敎學에 政治를 둔다는 것이다.

政治란 가장 중요한 것이 古今을 通해서 敎育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敎育과 政治가 일치되어 敎育을 하는者와 敎育을 받은자가 一致가 되어 그 社會의 政治의 風土가 安定됐을때 學問을 하는 者는 道를따라 師를 존경할 것이다.

여기에 師를 존경한다는 뜻은 바로 崇道한다는 뜻이니 바로 백성이 學問을 존경한다는 말이다.

臣은 살피건대 君主의 學은 능히 스승을 존경하는 道理를 다 한다는 것이 어려우니 스승은 다만 道를 전하는 것이므로 스승만 존경하는 氣風이 생기면 道는 저절로 尊崇되고 또 學問은 道를 배우는 것이니 道가 존송되면 民은 學問을 자연적으로 존경 할 것이다.

學이란 단 스승을 존경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適任자라 할 수 있는 스승을 얻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것이니 스승을 존경하되 그 적임자를 알지못하면 또한 大道를 밝혀서 聖스러운 지경에 到達하지 못할 것이다. 易經大傳에 보면 理를 窮極的으로 研究하면 事物의 性을 다하여 命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程子是 理 性 命 三者는 일적이 그 뜻이 서로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理만窮極的으로 파악 하면 性을 다하게되고 性을 다 하면 天命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朱子是 理를 窮究하면 知이고 性을 다하면(盡性) 行이니 子息이 되어 孝道할 줄 알고 臣下가 되어 忠誠할 줄 아는 것은 窮理이고 또 子息이 되어 능히 孝道하고 臣下가 되어 能히 忠誠하는 것은 바로 盡性이라고 보았다.

3. 誠意正心の 功用

52) 禮記學記篇名, 君子如欲化民成俗, 其必由學乎, 玉不琢, 不成器, 人不學, 不知道, 是故古之王者, 建國民 敎學爲之…凡學之道, 嚴師爲難, 師嚴然後道尊, 道尊然後民知敬學…臣安人君之學, 能盡嚴師之道爲亂師所以傳道 故師嚴則道自尊, 學所以爲道, 故道尊則民知敬學矣. 中庸九經衍義 卷三修身二 晦齋全書 pp.361~2.

朱子 朱子 孔子가 말한 뜻을 말 하기를 孔子는 心을 잘 지키면 마음은 그 지키는데 있고 心을 놓으면 잃어 버려 그 出入(즉마음)이 定時가 없고 또한 定處⁵³⁾도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런데 孟子는 이 말을 引用하여 마음이 神明不規則하여 잃어 버리는 쉬워도 保守定理하기는 어려움으로 잠시라도 그 心을 涵養함을 잃어서는 안되니 學者들은 마땅히 어느때라도 그 힘을 쓰지 않음이 없어서 神氣가 맑고 安定되게 한다면 心이 恒時保存되어 어디를 가더라도 仁과 義가 아닌 것이 없다고 하였다.

또 마음 體는 항시 진실로 고요한 것이나 그러나 때로는 動하지않을수 없으며 또 用은 眞實로 善한 것이나 또한 能히 動에 잘못 左右되며 不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개 動하여 不善에 호르는 것은 진실로 心體의 本然이라 할수 없으나 또한 마음이라 하지 않을수가 없다. 다만 모두 그 物欲에 誘惑되어 그렇게 된 까닭으로 孔子는 말하기를 지키면 存하고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려 그 心의 出入이 定時가 없을뿐만 아니라 定處도 알수없게 된다고 하였다.

論語에 顏淵이 仁을 물으니 孔子는 對答하기를 私欲을 克服하고 禮에 돌아감이 仁이 되어 진실로 하루라도 私欲을 극복하고 禮로 돌아간다면 天下가 仁에돌아 올 것이라고 하였다.

仁을 한다는 것은 자기로 해야할 하는 것이니 他로 해야할 하는것이 겠는가 반문했다.

다시 顏淵⁵⁴⁾이 그 이유를 물었을때 孔子는 대답하기를 禮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禮가 아니면 듣지도 말며 禮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며 禮가 아니면 動하지도 말라고 하였다. 朱子 仁이란 것은 本心의 全德이고 禮란 것은 天理의 節文이라 할수 있는 것이니 仁을 하는 者는 그 마음의 德을 完全히 하는 것이다.

대개 마음의 全德은 天理가 아닌 것이 없으니 仁을하는 者는 반드시 私欲을 克服하고 禮에 돌아 가야만 일마다 모두 天理에 맞게 되니 本心의 德이 다시 本人에게 完全해 질 것이다. 즉 克己復禮가 爲仁 한다는 뜻이다.

또 仲弓이 仁을 물으니 孔子는 門을 나갈때는 大賓을 보는듯이 하고 民을 부릴때는 大祭를 만드는 듯하며 自己의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미루지 말 것이니 이렇게 하면 나라에도 원망이 없을 것이며 집에서도 원망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53) 朱子曰 孔子言心操之則在此 捨之則失去。其出入無定時 亦無定處如此 孟子引之以明心之神明不測 得失之易 而保守之難 不可頃刻失其養 學者當無時 而不用其力……又曰心體固本靜然亦不能不動 其用固本善 然亦能流而入於不善 夫其動而流於不善者 固不可謂心體之本然 然亦不可謂之心也……同上揭書 p.387 中庸九經衍義卷六修身五 參照。

54) 論語顏淵問仁 子曰克己復禮爲仁 一曰克己復禮。天下歸仁爲仁由己而由人乎哉 顏淵曰諸問其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朱子曰 仁者本心之全德 禮者天理之節文也 爲仁者所以 全其心之德也 蓋心之全德莫非天理 而亦能不壞於人欲 故爲仁者 必有以勝私欲而復於禮 則事皆天理 而本心之德 復全於我矣。同上揭書 卷六修身五 p.387。

여기에 또 程子是 大賢을 보는듯 하며 大祭를 받드는듯 함은 바로 그것이 敬이 되니 敬하던 偏私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敬하지 않으면 私欲이 萬가지로 생겨 仁에 害로울 것이라고 하였다. 또 朱子是 敬으로서 自己 몸을 지키고 恕로써 物에 推及하던 私意가 容納되지 못함으로 心德이 完全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内外에 원당이 없다는 것은 또한 그 效果를 스스로 自考하도록 한 것이다. 私欲을 克服하고 禮에 돌아감은 乾道이고 敬을 專主하고 恕를 行함은 坤道이니 學問은 그 高下 淺深에 엇볼수 있겠다. 그러므로 學者는 眞實로 敬恕의 사이에 從事하여 自得함이 있으면 장차 私欲을 克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孟子는 仁은 사람의 마음이고 義는 사람의 가는 길인데 그 길을 버리고 따라가지 않으며 그 마음을 잃어 버리고 찾을줄 모르니 可憐하다. 사람들이 밝이나 개를 잃어 버리면 찾을줄 알면서도 마음을 잃어 버리고는 찾을줄 모르게 된다. 學問하는 道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라고 하였다.

臣은 살펴 보건데 마음은 一身의 主가되고 仁은 心德의 全이 되었으므로 사람이 능히 마음을 操存하여 그 全德을 잃지 않는 다면 行하는 바가 모두 道에 합할 것이니 이른 바 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仁과 義는 비록 内外가 다른것 같지만 그 端緒를 求한다면 모두 내 마음에 本然의 이치에 根本하였으니 처음부터 内外의 分別은 없는 것입니다. 故로 孟子는 처음에는 人心은 人路로서 함께 말하고 있으나 終末에는 홀로 放心을 찾을 줄 아는 데만 重點을 둘렀으니 능히 放心을 찾는다면 仁에도 어긋나지 않으며 義는 그 中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사람들은 이러한 義의 길을 버리고 따르지도 않으며 一身의 主를 잃어 버리고도 찾을려고 하지 않으니 정말 風에 병들어 本心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대개 마음은 活動의 物體이니 만약 提唱 警省하는 힘이 없으면 流轉 動搖되어 深淵에 沈淪되고 天空에 飛翔하여 소리에 따라가고 色에 쫓아가서 定出된 바가 없을 것입니다.

孟子는 마음을 기르는 것은 欲心を 적게 하는 것보다 이상이 있고 그 사람 됨됨의 품덕과 欲心이 적으면 비록 마음을 存하지 않는이가 있더라도 그런 사람은 적으며 또 그 사람됨 品이 欲心이 많으면 비록 마음만 存한이가 있더라도 그런 사람은 많다 하였다. 呂大臨은 欲이란 것은 物에 感하여 動하는 것이니 마음을 다스리는 道는 欲心を 적게 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는 것이다. 欲心を 적게하던 耳目의 官能이 物에 가리워지지 않으니 마음이 항상편안 할 것이다. 마음이 항상 편안하면 안정되어 어지럽지 않고 心理的으로 밝아 어둡지가 않으니 道가 生하는 바이며 德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不存이란 것은 利欲에서 制御되어 本心を 잃은것을 뜻함이니 따라서 欲心이 적은 사람은 利欲에게 制御되어 本心を 잃은 걱정이 없다는 것

이다. 欲心이 많으면 動作을 좋아하여 節制가 없으며 妄動되고 常道를 잃게 되니 善한 端緒가 상실되고 天理에 어그러져 存함이 있는 사람도 그것은 많다 하였다.

朱子⁵⁵⁾는 欲이란 耳 目 口 鼻 四肢의 欲과 같은 것이니 비록 사람마다 없을수 없는 것이나 그러나 欲心이 많고 節制하지 않으면 그 本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臣은 살피 읊건대 先儒周子가 말하기를 孟子는 마음을(心養) 기르는 것을 欲心을 적게 함보다 더 좋은 方法이 없다고 하였으나 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은 欲心을 적게 하여 保存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대개 欲心을 적게하여 없애 버리는데 까지된 줄 것이니 欲心이 없어지면 誠이 이루어지고 明에 通할 것이다. 誠이 이루어지면 賢人인 것이고 따라서 明에 通하게 되면 聖人인 것이다. 臣은 生覺건대 사람의 마음은 仁 義 禮智의 性을 구비 하였으니 모두 堯舜이 되어 天地人 三才에 참여하고 貨育을 協贊할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 物欲이 害친 바가 된 까닭으로 능히 이것을 存養하지 못함으로서 昏愚가 되고 狂妄이 되어 人欲을 放縱하고 天理를 滅絶시키는 것이다. 眞實로 그 欲心을 적게하고 이를 充足하여 欲心이 없는데 까지 이르게 되면 여기에 그 本然의 體를 保存하여 誠이 서고 明에 通하여 聖人也 되고 賢人也 될것입니다. 通書에 或人이 물기를 聖人을 배울수 있습니까? 하니 周子는 될수있다고 對答했다.

그러면 또 聖人되는 要領과 方法이 있습니까 또 對答하기를 要領이있다고 對答했다.

다시 물기를 그 要領과 方法을 일러 주기를 請합니다 하니까 아래와 같이 答했다.

一이 要領이 되니 一이란 것은 바로 欲心이 없는 것이다. 欲心이 없으면 靜할 때에는 虛하고 動할때엔 直하게 되니 靜할때에 虛하면 明하고 明하면 通하게되고 따라서 動할때에 直하면 公하고 公하면 溥하게 되니 明通하고 公溥하면 바로 聖人되는 功用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였다. 陳淳은 말하기를 一이란 것은 表裏가 함께 一이 되고 純徹하여 二가 될수 없는 것이니 조금이라도 私欲이 있으면 바로 二가 되는 것이다. 內가 一이면 靜할때 虛하고 外가 一하면 動할때 直하게 되어 이렇게 明通 公溥하면 또한 언제든지 一이 많음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바로 여기에 一은 한마음의 渾然性을 뜻하니 太極에 있어 體가 되는 것이며 無欲이란 것은 心體가 粹然한 것이되어 無極의 眞인 것이된다는 뜻이다.

4. 尊賢之內容과 그 意義

尊賢의 意義는 바로 賢才을 길러 萬民에게 恩澤을 입혀 준다는 뜻이니 賢才를 기

55) 朱子曰 欲如耳目口鼻四肢之欲雖人所不能 無然多而不節未有不失 其本心者……臣按先儒周子曰 孟子言養心 莫善於寡欲 豫謂養心 不止於寡而存耳 蓋寡焉 以至於無 無則誠立明通 誠立賢也 明通聖也 臣謂人之心 且仁義禮智之性 皆可以爲堯舜 而參天地 贊化育也……同上揭書 p.389 國譯晦齋全書 中庸九經衍義卷六修身五 p.439 參照.

르는 것은 萬物을 기르는 것과 같다.

中庸에 考察해 보면 仁⁵⁶⁾이란 바로 人과 同一하다고 하였으니 親族을 和睦함이 가장 큰것이고 義란 것은 宜이니 賢者를 존경함이 큰 것이다. 親親 즉 親族을 和睦함을 위치에 따라 차등을두고 賢人을 尊敬하는데 等差와 禮節이 생기는 것이라 하겠다. 朱子는 親親은 仁의 일이고 尊賢은 義의 일이니 親族을 和睦하게 하고 賢人을 尊敬하면 그 중에 자연히 降殺(항쇠로본다 등급에 따라 낮추어본다) 等差가 있을 것이니 이것이 곧 禮節인 것이다. 親族을 和睦하는데 있어서 父子間에는 이렇게하고 宗族間에는 저렇게 하는 것이 이른바 항쇠(降殺)인 것이다. 또 賢人을 존경하는데 있어서 宜當히 섬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땅히 朋友로 對할 사람도 있을 것이니 이른바 等差라 한 것이다.

臣은 살피 보건데 魯哀公이 政事를 물으니 孔子는 政治하는 道를 告하면서 맨먼저 言及하였다.

대개 仁義란 것은 人道라 할수 있는 바 仁은 親族을 和睦히 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義는 賢人을 존경하는 이상 없으니 이 두가지는 帝王의 政治하는 根本입니다. 九經의 條目을 따로 叙列함에 있어서 尊賢하는 것을 親親위에 配列 하였으니 대개 존현을 하지 못하면 道義를 밝힐수 없으므로 親親의 道를 다 하지 못할 것이니라. 孟子는 賢人을 높이고 才能을 使用하여 俊傑이 位에 있으면 天下의 士가 모두 기뻐하여 그 朝廷에 벼슬하기를 원할 것이니라 하였다.

다시 晦齋先生은 말 하기를 臣은 살피옵건데 恭敬하여도 실상이 없으면 君子는 헛되어 拘束할수 없습니다. 때문에 賢人을 존경 한다는 것은 다만 虛禮로서 형식상 높이는 것이 아니라 或은 賓師의 位로써 높이 道義를 詢訪하고 或은 輔相의 職으로써 위임하여……始終토록 疑心하지 않는 것이 바로 尊賢하는 實際이다. 君主가 賢人을 좋아하는 誠意가 있어 모든 哲人이 位에 있으면 山林에 숨은 선비도 이소문을 듣고 尊慕하지 않는이가 없을 것이다. 또 孟子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옛날의 賢王은 善을 좋아하여 勢威를 잊게 되었으니 옛날의 賢士는 어찌 홀로 그렇게 안 했겠는가.

그 道를 즐겨하여 남의 威勢를 잊게되는지라

그런 까닭으로 王公이 공경하고 禮를 다하지 않으면 자주 그를 볼수도 없었으니 보기도 어려운데 어찌 그를 臣下로 삼을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天下에 遠尊⁵⁷⁾이 셋이 있으니 官爵이 하나요 年齒가 하나요 또 德望이 하나인데 朝

56) 中庸仁者人也 親親爲大 義者, 宜也, 尊賢爲大 親親之殺 尊賢之等 禮所生也 朱子曰 親親 仁之事 尊賢 義之事 親之尊之 其中自有箇降殺等差 這便是禮 親親 在父子如此 在宗族如彼 所謂殺也 尊賢 有當事之者, 有當友之者 所謂等也……臣按 魯哀公問政 孔子告之以爲治之道 而首及乎此 蓋仁義者 人道之所由立也 仁莫大於親親 義莫大於尊賢 二者帝王爲政之本也……同上揭書 中庸九經衍義卷八 尊賢 p. 403.

57) 天下有遠尊三 爵一 齒一 德一 朝廷莫如爵 御當莫如齒, 輔世長民莫如德, 惡得有其一 以慢

廷에서는 官爵이 최고요 鄉黨에서는 年齒가 제일이다. 社會를 위하고 百姓을 기르는 데는 德望 이상없으니 어찌 그 하나 官職만 가지고 年長者와 德望을 가진 者를 輕忽히 하겠는가.

그런 때문에 장차 크게 일할수 있는 君主는 臣下를 부르지 않고 만약 謀議하고자 함이 있으면(즉 相議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臣下에게 王이 나가서 그의 德을 높이고 道를 즐겨 하니 道理를 이같이 王 自身이 즐겨 하지 않으면 같이 일 할수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湯王은 伊尹에게 배우고 그를 臣下로 모셨으므로 勞苦하지 않았어도 天下에 王이 쉽게 되었다. 齊桓公은 管仲에게 배운뒤에 그를 臣下로 삼았으므로 수고하지 않고도 諸侯에 霸王이 되었던 것이다. 禮記學記篇에 보면 임금이 그 臣下에게 臣下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두가지이니 그 하나는 祭主가 되었을때는 臣下로 대우하지 않으며 그 스승이 되었을때는 臣下로 대우 하지 아니한다.

大學의 禮에 비록 天子에게 告하더라도 北面을 하지 않는 것은 스승을 높이는(즉 尊賢) 까닭이라고 하였다.

……通書에 論하기를 天地사이에 지극히 높은 것은 道이고 지극히 貴한 것은 德이라 했으며 지극히 얻기 어려운 것은 사람이며 사람으로서 지극히 어려운 것은 道德이니 이 얻기어렵고 貴하고 높은 것을 해결하는데는 모두 自身에 求德에 있을 뿐이다. 他로부터 求하고자하는 것들은 지극히 얻기 어려운 것이나 自身에서 求할수 있는 것도 師友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道義란 것을 몸에 두면 貴하고 또 尊한 것이다. 사람은 처음 세상에 태어나면 蒙昧하니 長成하여 師友가 없으면 어리석게 된다. 이는 道義가 師友로 말미암아 있게 되므로 貴하고 또 尊함을 얻게되니 그 義가 가장중하며 그 모임 또한 즐겁지 아니 하겠는가 하였다. 晦齋先生은 이말을 구체적으로 다시 考察하여 아래와 같이 그 例를 들었다.

臣은 살피옵건대 周子(周濂溪)의 論은 오로지 學者들 만을 爲하여 論言것이 아니라 王位에 있는 者도 마땅히 師友관계를 體驗해야 되는 뜻으로 記錄 하였습니다.

대개 天地사이에 道만이 지극히 높고 德이 지극히 貴하니 옛 聖帝 明王들은 그 높은 자리와 權勢를 잊고 有道 有德한 君子에게는 공경하고 道義를 詢訪하여 王스스로의 體에서 나와 이른바 師友로 하여금 貴하고 尊함을 얻게된 것입니다.

後世에 와서는 다만 君臣간의 직분만 알고 다시 스승을 높이고 朋友를 親하는 道가 있지 않았으니 혹 겉으로 보기에 賢人을 尊敬하는데 하고 있으나 內로는 善을 중

二哉 故將大有爲之君 必有所不召之臣 欲有謀焉則就之 其尊德樂道……禮記學記篇曰 君之所不臣於其臣者二 當其爲尸 則弗臣也(尸祭主也)當其爲師 則弗臣也 大學之禮 雖詔於天子 無北面所以尊師也. ……天地間 至尊者道 至貴者德 至難得者人 人而至難得者道德 有於身而已矣……同上揭全書 中庸九經衍義八卷尊賢一 p. 40.

아하는 誠心이 없으며 또는 虛禮虛飾으로 스승을 높이는채 하여도 尊賢의 道の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 어찌 만족하게 일할수 있겠습니까.

아! 이것이 바로 君主의 德이 밝지 못한 소치이고 治道가 날로 문란해진 所以로서 賢者는 恒常 배를 만날수 없어 嘆息이 있는 것입니다. 孟子는 말하기를 知慧로운⁵⁸⁾ 자는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나 마땅히 직분에 힘쓸 것이고 仁者는 사랑하지 않는게 없기 때문에 賢人을 親하기를 急務로 삼을 것이니 堯와 舜같은 知慧로서 使物을 두루 알지 못해도 先務를 行할것이 무엇인가 急히 할 것이다. 堯舜의 仁으로서도 愛人을 두루하지 못하므로 賢人을 親함이 急務이라 하였다. 또 朱子는 말하기를 知者는 모르는 것이없으나 그러나 무엇이 急務인가를 파악하여 힘쓴다면 다스려 지지 않는게 없다고 하였고 따라서 그 知慧도 크게 될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仁者는 진실로 사랑하지 않음이 없으나 항상 賢人을 親하는데 于先한다면 그 恩惠가 洽足하지 않음이 없고 그 仁도 넓어 질 것이라고 하였다.

揚雄은 天下가 비록 크더라도 이것을 다스림은 마음에 있고 四海가 비록 넓고 넓다 하여도 이것을 다스린다는 것은 道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聖人이 天下를 다스림은 마음과 道일 뿐이다. 그러나 반드시 賢人을 求하는데 汲汲함은 무슨 이유 이것입니다. 대개 天下의 事務는 한사람이 혼자 다스릴바가 아닌 것이니 바로 聖人이 天下다스리는데 비록 마음과 道로서 根本을 삼는다 하지마는 眞實로 聖賢의 賢한 臣下를 얻어서 業務를 맡기지 않으면 그 마음과 道도 天下에 펴수없을 것이다.

그러나 賢人을 얻지 못할때는 깊이 걱정하고 이미 賢人을 得했을 때는 오로지 믿고 맡기면 바로 이것이 垂衣拱手하고 힘쓰고 걱정하지 아니해도 天下가 다스려지는 所以라고 晦齋先生은 論辨했다.

孔子는 小人은 不仁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義롭지 않음을 무서워 하지 않으며 利를보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며 刑罪를 당하지 않으면 罰하지 않으니 작은 것에 懲戒하여 큰 것에 경계됨이 小人의 福인 것이다 하였다.

이 뜻을 晦齋는 이렇게 보았다. 小人의 心膽은 위에서 보았습니니다. 대개 小人은 忌憚이 없으므로 仁義를 해하면서 조금도 부끄럽고 두려워 함이 없으니 작은 것으로 賢한채하고 有能한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治政을 방해하고 큰 것으로는 刑罰이나 爵賞을 함부로 하여 나라를 혼란케하여 나라까지 망하게하니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대개 이런 마음의 所有者 小人들은 利에는 急從하고 害는 避하는 것만 아는 까닭으로 利를 보아야만 善을 하는데 원장할수 있고 刑罰을 두려워치 惡을 하는데 무서워하니 진실로 작은 것에 중계하여 큰것에 이르지 못한다면 小人이 원하는 福인

58) 孟子曰 智者 無不知也 當務之爲急 仁者 無不愛也 急親賢之爲務 堯舜之知 而不徧物 急先務也 堯舜之仁, 不徧愛人, 急親賢也……朱子曰 知者 固無不知 然常以所當務者爲急 則事無不治 而其爲知也大矣……同上揭書全書 中庸九經衍義 差九 尊賢二 p.405 參照.

것이라고 하였다.

中庸에 孔子는 말하기를 君子는 中庸을하고 小人은 反中庸한다고 하였다. 君子가 中庸을 한다는 것은 君子이면서 때에따라 中道를 얻는 것이 있고 小人이 中庸을 反對함은 小人이면서도 忌憚이 없는 것이다 하였다. 또 朱子는 中庸이란 것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過不及이 없으며 平常理致에서 있으니 바로 이것이 天命人心의 正인 것이다. 다만 君子는 天命이 스스로에게 있음을 認識하고 항상 謹慎하고 경계 하며 두려워 하여 그 當然함을 잃지 않으니 이런 까닭으로 능히 그때 그때에 따라 스스로 中道를 얻게되고 小人은 이런 것을 알지 못하여 忌憚할줄 모르니 그 心이 항상 中에 反對되어 中하지 못하고 實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5. 親親의 意義와 和睦

孝經에 孔子는 옛날 明王은 父를 섬기는데 孝로하는 까닭과 같이 하늘을 섬기는 것이 밝고 母를 섬기는데 孝하는 까닭으로 땅을 섬김이 밝으며 長幼가 順한(上敬下順)까닭으로 上下가 다스려지며 이렇게 天地理致를 人間의 恩惠로부터 잘 明察할 줄 알면 神明⁵⁹⁾이 彰著하게 되니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것과 같다는 뜻이다. 이렇게 살펴보면 비록 天子일지라도 반드시 尊敬하여야 할 대상이 있으니 父母가 있는 것이며 또 먼저 兄이있는 法이다. 宗廟(歷代나라 王의 위패모신 곳)에 致敬하면 鬼神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이말은 親과 誠意를 잊지않고 至極히 그 몸을 닦고 行을 삼가 하느니는 先祖를 辱되게 할까 두려워 할 것이다 라고 한 말이다. 이런 마음으로 宗廟에서 至極히 敬하면 鬼神이 나타나게 되어 스스로를 위하는 길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孝弟가 至極하면 神明이 通하여 四海에까지 光明이 通하지 않는곳이 없다고 하였다.

眞德秀는 말하기를 父母는 子息의 天地가되고 天地는 사람의 부모와 같은 것이니 그가 바로 體인 것이다. 때문에 父에게 孝하면 天섬기는 이치와 같고 母를 섬기는데 孝가 지극하면 땅을 섬기는 이치에 밝게 되니 明察이란 것은 昭然히 현저하여 마음이 밝게 깨닫게 된다는 말이다. 父가 나를 낳고 母가 나를 養育하니 이것이 이른바 子息의 天地는 父母란 뜻이다. 큰 乾元은 萬物이 거기에 힘입어 비롯되고 지극한 坤元은 또 萬物이 힘입어 생케되니 이것이 이른바 사람의 父母이다. 여기에 乾은 天이

59) 孝經子曰 昔者明王 事父孝 故事地祭 長幼順 故上下治 天地明察 神明彰矣 故雖天子 必有尊也 言有父也 必有先也 言有兄也, 宗廟致敬 不忘親也, 修身慎行, 恐辱先也, 宗廟致敬, 鬼神著矣, 孝弟之至, 通于神明, 光于四海 不所不通……眞德秀曰, 父母者, 子之天地, 天地者 人之父母 其實一也 故事父孝 則事天之理明 事母孝, 則事地之理察, 明察云者, 謂昭然顯著, 洞悟於心也 夫父兮生我 母兮育我 此所謂子之天地也……同上揭全書 p.434, 中庸九經衍義卷十三 親親二 參照.

요. 陽을 뜻하는바 父이요 坤은 地요 陰인고로 母로보니 天地와 陰陽의 理致를 父母로 보는 것이다.

……하늘이 生하는 바와 땅이 養育하는 바에 오직 人間이 큰 存在인데 父母가 完全하여 子息을 낳고 子息이 完全해야만 孝를 이룰수 있으니 그 身體를 毀傷하지 않으며 또 그 先祖를 辱되게 하지 않아야만 子息으로서 完全하다고 할수 있는 것이다.

까닭에 一動一靜에도 父母님을 잊을수 없으며 一言一說에도 父母님을 잊을수 없으므로 사람의 子息된 道理로서 孝이상 더 큰것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天地를 섬기는 道理도 어찌 이와 다를게 있겠는가. 대체 人은 몸이 있으며 거기에는 반드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있으면 性이 있으니 이것이 天地가 人間各者에게 賦與한 떳떳한 道이다.

이와같이 보았을때 孔子는 孝子が 어버이를 섬기는데는 居하매 그 恭敬을 다하고 奉養할때는 즐거움을 다하고 病드시던 그 근심을 다하고 喪事가 나던 그 슬픔을 다하고 祭祀를 모실때는 그 엄숙함을 다해야 하느니 이 다섯가지가 具備되어야만 능히 어버이를 섬기게 된다 하였다.

또 禮記에 子息된 道理는 어버이께 겨울이면 따스게 해드리고 여름이되면 서늘하게 해드리고 저녁(夕)이되면 잠자리를 보살피며 편안히 눕게 해드리고 새벽이 되거든 安否를 살펴 밤새 어떠하였나 확인 해보고 밖에 나갈적에는 반드시 告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告하며 놀때에는 一定한 場所와 方向을 알려드리고 父母님께 말씀드릴적에는 恒常 愉었다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眞實⁶⁰⁾한 孝子는 반드시 父母님 앞에 항상 和氣를 보여 드려야하고 愉快한 顏色을 나타 내주어야 하며 또 어린이 같이 어리광(婉容)이 있어야하는 것이다.

또 孝子는 玉을 잡고 있는듯이 기뻐하며 充滿한 것을 받는듯이 하여 恭敬하고 조심하여 항상 무엇이고 감내하지 못하는 듯하게 하고 장차 잘못할것 같이 즉 약간 詐가 보이는 것같이 해야 하는 것이다. 容貌가 嚴威스럽고 儼恪하고 겸손하면 어버이를 섬기는 孝가 되지못한다. 이상과 같은 뜻을 陳黼란 사람은 아래와 같이 밝혔다. 和氣와 愉色과 婉容은 모두 愛心の 發한 바이고 감내하지 못하는듯 하고 장차 잃은 듯이 함은 모두 敬心の 存한 바이니 愛와 敬을 兼함이 참된 孝子の 道인 것이다.

또 眞德秀는 嚴威 儼恪은 위에 있어 아랫 사람을 굽어보는 容儀이니 이를 父母에게 배운다면 嚴厲하게 되는 까닭으로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아니된다고 하였다.

60) 孝子之有深愛者 必有和氣 有和氣者 必有愉色 有愉色者 必有婉容 孝子如執玉 如奉盈洞洞屬屬(洞洞敬之表裏無間也 屬屬誠實無僞也) 如不勝 如將失之 嚴威儼恪 非所以事親也……陳黼曰 和氣愉色 婉容 皆愛心之所發 如不勝 如將失之 皆敬心之所存 愛敬兼至 乃孝子之道 故嚴威儼恪 使人望而畏之 是成人之道 非孝子之道也……故事天如事親 所以致其愛也 愛與敬 兩得之而後 孝子之行全矣. 同上揭全書 p. 435 中庸九經衍義卷十三親親二 參照.

子息된 자는 언제나 無聲한데 들으며 無形한데 본다 하였다. 또 이것은 그보지 못한 바에 戒懼하며 그 듣지 못한 바에 恐懼한다는 뜻이다.

대개 孝子의 마음은 조그마한 어긋남과 조그마한 실수도 두려워하는 까닭이니 그 묵묵히 父母님을 心身을 관찰함이 이와 같으니 父母를 섬기는데 誠實치 못한 사람이면 能히 이같이 되겠는가 하였다.

어질고 착한(仁人)이가 어버이를 섬기는 하늘을 섬김과 같으며 하늘을 섬기는 어버이를 섬김과 같다고 하였다.

禮記內則에 曰 父母가 비록 別世하였다 해도 장차 善을 하면 父母에게 名이 끼칠 것을 생각하여 반드시 決行하여야 하며 不善을 하면 父母에게 羞辱이 될까봐 생각하여 決行을 하지 않는다 하였다. 晦齋先生은 이것을 親親의 根本에 論하기를 君子가 善을 함은 그 이치들이 마땅히해야 되는 때문이고 그 不善을 하지 않는 것은 그 理致가 마땅히 해서는 안되는 때문이니 하고자 함에 있어서 한 行爲가 되겠는가.

그러나 孝子의 마음은 일찌기 一念이라도 父母를 生覺하지 않음이 없으니 一言一動을 반드시 父母에게 榮光되고 恥辱을 생각하여 善을하는데는 果敢하고 惡을 하는데는 경계해야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孝經에 있는 바와 같이 立身 行道하여 후세에 父母님의 이름을 社會에 뽐뽐하게 해드리는 所以인 것이라고 하였다.

또 小學에 찾아보면 人民이 있는곳에 夫婦가 있고 夫婦가 있는 뒤에 父子가 있고 父子가 있는 뒤에 兄弟가 있으니 一家의 親은 이三者뿐인 것이다.

이 人民 夫婦, 父子가 있는 뒤에 九族에 이르기 까지 모두 三親에 根本하고 있기 때문에 人倫에 가장 重함되니 敦篤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兄弟란 것은 形體는 나누어져 있으나 元氣는 같이 한 사람이다. 어릴적에 父母는 左右에 兄弟의 손을 이끌고 兄弟는 前後로 父母의 옷깃을 당겼으며 밥먹을땐 食卓을 같이 했고 옷입을 적엔 衣服을 傳해입고 工夫할적엔 連해서 같이 배웠으며 놀적엔 無位를 같이하였으니 또 심술꾸러기나 고약한 兄弟가 있을지라도 서로 사랑으로 응서해주지 않음이 없었다고 하였다. 詩經에 妻子가 和合함이 琴瑟이라는 것과 같으며 兄弟가 和合하여 和樂하고 즐거우니 室家가 편안하고 妻子를 즐겁게 하니 孔子는 父母는 安樂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뜻을 晦齋先生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살펴보면 父母를 편안케 하는 道는 그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 있으니 사람이 능히 妻子에게 和合하면 兄弟에게도 友愛할 것이며 이 같이 되면 父母도 반드시 安樂하게 되기 때문에 孔子는 詩를 誦讀하면서 贊美한 것이라고 하였다. 大學에 兄弟간에 和合하다 하니 兄弟間에 和合한 뒤에야 國人을 가르칠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 兄弟 和合하여 國人을 가르킨다는 뜻은 바로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뜻과 通하는 意味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V. 結 論

晦齋先生은 孔孟의 正統儒學을 계승한 道學者로서 後代에 더욱 그 學問을 深化發展시켰을 뿐만 아니라 朱子學의 哲學的 無極太極辯의 性理學을 通하여 正脈을 繼承한 朝鮮儒學의 先導者라 稱할수 있겠다.

여기에 보여준 孔孟朱의 正脈이란 다른 아니라 道學에서 찾아볼수 있는 理氣二元論의 宇宙觀내지 人生觀에 根據하여 道義의 主體인 人間에 內在한 人性을 스스로 認識하고 또 道の 體得과 實踐窮行을 通해서 만이 人道の 主體인 人性을 自我認識할수 있다고 보았다(盡心知性)

體得을 爲해서는 人間은 누구나 居敬과 窮理의 兩面性을 並行工夫가 必要하다는 思想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道の 體得에 있어서는 먼저 올바른 宇宙觀과 人生觀을 가져야하고 또 바른 宇宙觀과 人生觀을 가지려면 周濂溪의 太極圖說에서 말한 바 無極而太極이란 理論을 올바르게 認識치 않고서는 안된다고 晦齋는 生覺하고 있다.

그 이유는 道の 根源은 天에서 나온것이요 즉 道の 大原의 天은 無極이 太極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無極太極의 理論은 周子自身이 道の 體를 說明하기 위해서 使用한 달이나 原來 老子哲學에서 빌어온 道家哲學의 文字라고 排擊하는데 不過했던 것이다. 이것은 만약 無極이라 말 하지 않으면 太極이 하나의 物件과(一物)같아야 萬化의 根이 되기에 不足하고 반대로 만약 太極이라 말하지 않으면 無極이 成立될수 없다는 理論이 나오면서 부터 本體論의(體用) 哲學問題로 轉變하여 有냐 無냐 하는 문제 또 理냐, 氣냐 또는 形而下學이나 形而上學이나의 여러 問題가 理論적으로 제기 된다고 볼수 있겠다.

따라서 道와 器의 區別의 問題 極의 意義로서 極至 標準의 問題가 제기되어 끝내는 學問的 傾向인 尊德性和 道學의 學까지 발전 하였다고 볼수있다.

여기에 晦齋와 忘機堂 曹漢輔와의 辯論은 朱子와 陸象山의 理論과는 그 內容이 同一하지는 않다. 다만 有無의 問題 에있어서 形而上學이나 形而下學이나 또 理氣의 問題나 極至 標準의 問題간은 것은 言及하고 있으나 論爭은 아니었다.

여기에 問題되고 있는 論辯은 主로 道の 體를 認識을 어떻게 하느냐 즉 道の 實踐을 어떻게 해야 바로 하는 것이냐 하는 問題가 集中的으로 論辯하고 있다.

따라서 體得의 方法 實踐의 方法인 敬義의 問題등 下學 上達의 問題까지 言及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曹漢輔는 道體의 認識에 있어서無極의 眞을 吾心의 主로 잡아 그 것을 存養하는 것이 즉 道體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 하였다.

그러나 無極之眞은 「終歸漸盡」하는 靈的인 根源이라고 하여 老子에 있어서 寂滅의

性格이 있다고 보는 見解는 結局 老莊의 「虛無」나 佛教의 「空寂」에 가까운 論理가 되기 때문에 晦齋는 儒敎의 道學的 實事求是의 立場에서 忘機當의 論辯을 不定하였다. 그 不定的 論理는 理와 氣를 區別하는데 理를 優位에 놓고보는 理論이었다. 즉 理는 氣를 生하게 하는 根源으로서 그것은 氣속에 內在하고 있으면서 또 氣를 超越한다고 보는 것이 즉 氣보다 理가 優位에 있다고 보는 理論이다.

그러나 形而上學의 理는 氣를 超越해서 永遠히 常在하는 同時에 또한 氣속에 內在하여 有形속에 함께 있으면서 現象世界 形而下學의 森羅萬象한 千萬變化를 이르게 된다. 바로 이런것을 天地의 流行이라 하는 것이다. 이러한 流行에서 人物은 「氣以成形」하고 「理亦賦焉」하면서 태어나 各自 自己의 性을 가지게 되니 所謂有物이면 有則의 則이 成立되고 「民之秉彝」의 秉彝이다.

이러한 人과 物의 性으로서 주어진 理는 즉 氣속에 內在해 있는 理를 分殊의 理라 하고 氣를 超越하여 永遠不變의 理로 常存하는 理를 理의 理로보는 것이다.

이러한 分殊의 理가 個個의 事物에 있어서 그것의 所以然之則과 所當之理가 된다.

所以然之則은 自然世界의 物理的 法則이 되고 여기에 所當然之理는 人文世界 즉 精神世界의 道德的 當爲性이 되는 것이다.

人間에 있어서 當行之路는 中庸에 말한 率性之謂道를 뜻함ियो 또 「事物當行之路」를 말하는 뜻과 같다.

이상과 같이 晦齋先生은 朝鮮王朝中期의 (1491~1553) 大儒學者이며 哲學者이고 經世家로서 우리나라 道學思想의 始初의 人物이다. 따라서 先生은 당시 經世思想으로 國家社會의 基本問題를 道德的으로 對備하고 그 方道를 提倡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平生研究한 道德的 政治哲學은 永遠히 우리나라 民族史에 길이 빛날 것이다.